1964

5

지

체

영예의붉은수첩

덕

소년단

1964.1

장단 - 안딴
모범 분단 기발을 높이 들어라
(아동 가요합창곡)
김 청일
김 준석
궁지 드높이
(합창) 쾌활하게
(전렴)두리- 둥둥 (울려라 울려 - 울려라 -) 울려
두리 둥둥 북을 울려 라
(독창) 자유스럽게
1. 로- 동당 - 시대에 자 라 는 우 리
2. 천- 리마 - 시대에 자 라 는 우 리
3. 공산 주의 - 후비대로 자 라 는 우 리
(후렴) 모 범 분 단 기 발을
높 이 들 어 라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4년
5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장단-안딴
모범 분단 기발을 높이 들어라
(아동 가요 합창곡)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
1964

차 례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 시절

(제 10회)

강 효 순　　　　그림 최 순천

8

다음 날 이른 아침이였습니다. 현수는 새로 사온 모자를 눌러 쓰고 부엌으로 드나들며 조반을 독촉하였습니다. 학교에 늦어지면 어쩌겠느냐고 노상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늦지 않으니까 걱정 말구 어서 세수나 해라》 하며 어머니는 세수'물을 떠 주었습니다. 현수는 세수'물을 받아 가지고 고양이 세수 하듯이 얼굴에 물을 찍어 바르고 뜨락으로 뛰여 나왔습니다. 그는 새로 빨아 놓은 수건으로 얼굴을 북북 문질렀습니다.

수건 한복판에는 흙 물로 큰 도장을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본 원수님은 빙그레 웃고 나서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너 전에두 매일 세수하댔니》

《응!》

현수는 머리를 까딱까딱하였습니다.

《현수 아주 용한데! 세수를 매일 해야지! 그런데 너 이제는 학교에 붙었으니까 전에처럼 세수를 해서는 안 된다.!》

현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듯이 까만 눈을 반짝이며 원수님의 얼굴을 바라 보았습니다.

《세수하는 것두 뭐 두 가지 있나?》

《두 가지 뿐이겠니. 여러 가지 있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어떻게 세수를 하는 지 대줄 게 적삼을 벗어라》

현수는 재미 있다는듯이 상글상글 웃으며 적삼을 벗었습니다.

원수님은 세수'물을 떠다가 현수의 머리와 목 그리고 손과 팔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자 인제는 발을 씻자》

《다른 물을 떠 올가?》

현수의 말이였습니다.

《발은 세수한 물로 씻어두 괜찮어! 어머니가 물 길어 오시기 힘들지 않겠니?》

《그럼 발이 싫어하지 않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맙다구 절을 할 게다》

《왜》

《더러워진 발을 손이 좇아 가서 깨끗이 씻어 주니까 그렇지 않겠니》

《정말! 그렇겠구나!》

현수는 고개를 까딱까딱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수건으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현수 앞에 보이며 말했습니다.

《자 봐라 수건이 깨끗하지 않니, 그런데 네가 씻은 수건은 이게 뭐냐》

현수는 귀 밑이 빨개졌습니다.

《수건을 매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머니가 빨래하기 힘들지 않겠니?》

《알았어! 이제는 물루 깨끗이 씻구서 수건으로 닦을 테야》

그는 조반 술을 놓자 모자를 쓰고 학교로 뛰여 올라 갔습니다. 칠골에서는 현수 또래들이 여러 명 새로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현수는 벌써 학교를 들쓰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새로 입학한 다른 아이들도 큰 아이들 축에 제법 섞이여 뛰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놓을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새로 입학한 제 또래들과 둘러서고 옥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내 목에 때 있니?》 하며 고개를 우로 제쳤습니다.

《없어!》

둘러 서고 있던 아이들의 대답이였습니다.

《자! 나두 봐 다구》

한 아이가 현수 앞으로 다구어 서며 목을 내 보였습니다.

《자! 나두》

《나두》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제쳤습니다. 현수는 그 애들의 목을 하나 하나 검사해 보았습니다. 누구의 목에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머리가 더부룩하게 조았습니다.

《이게 뭐냐, 솔 장수처럼 왜 깎지 않았니》

현수는 그 애의 머리털을 몇 오리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의 머리 털을 살살 들춰 보고 나서

《야 너 머리에 웬 먼지가 이렇게 많으냐, 자 봐라 내 머리에두 먼지가 있니?》

현수는 그 애 앞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없어! 나두 오늘 집에 가서 깎을래》

그 애는 볼을 살살 긁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넌 학교에 오기 전에 깎아야지 가서 깎으면 뭘하니》

하고 한 아이가 툭 쏘아 주었습니다. 이 말에 그 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학교에 오기 전에 머리두 깜구 목두 씻구 손과 발까지 씻어야 돼! 자 봐라 나는 손톱두 깎구 발톱까지 깎구 왔어!》

현수는 아이들 앞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손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손을 들여다 보는 것이였습니다.

《자 내 손두 봐라》

《내 손두 봐라》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며 저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구 왔던 그 아이는 손톱도 남보다 길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적삼'자락 아래에 손을 숨겼습니다.

《너는 손톱두 깎지 않구 왔니 어디 좀 보자》

하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

이는 손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너는 형두 없니? 나는 중국서 나온 우리 형이 머리랑 목이랑 씻어 주구 손톱, 발톱까지 깎아 주었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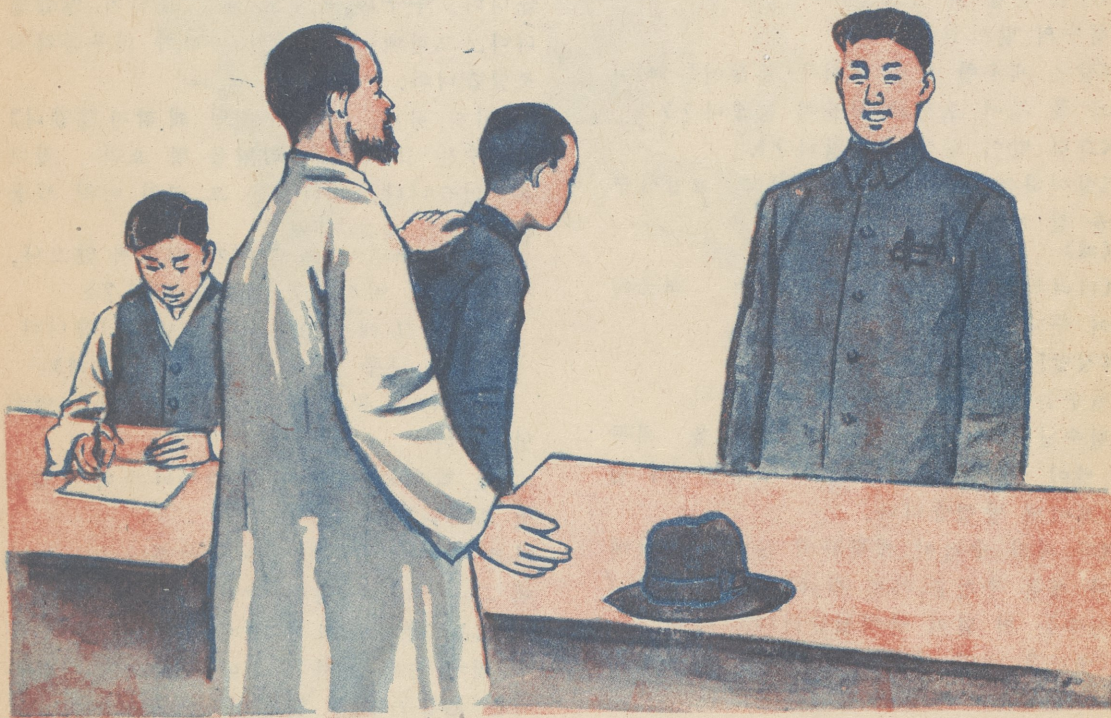
《중국에 너의 형이 있었니?》

《응! 》

《그런데 왜 나왔니.》

《공부하러 나왔지 뭐.》

《중국엔 학교가 없다나?》

《조선 학교에 다니려구 나왔어 우리 학교에 말이야 5 학년에 붙어 씨! 》

현수는 눈을 굴리며 아이들을 쑥 둘러 보았습니다.

《그럼 중국 말두 잘 하겠구나.》

《잘 하지 않구! 》

아이들은 부러운 눈초리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때에 한 아이가 현수에게 툭 쏘아 붙였습니다.

《넌 그럼 세수두 할 줄 모루구 손톱두 깎을 줄 모르니?》

《안다 알아》

《그럼 왜 너의 형이 씻어 주었니 얘! 세수두 할 줄 모르는 애구나! 》 하며 그 아이는 현수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현수를 바라보며 깔깔 웃어댔습니다.

《오늘은 우리 형이 씻어 주었지만 래일부터는 내가 혼자 씻을래 씨! 》

현수는 아래'입술을 쑥 내밀고 동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운동장으로 올라 오는 언덕 길 쪽을 바라 보는 것이였습니다. 때마침 원수님이 외조부의 뒤를 따라 학교로 올라 오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는 벌써 많은 학생들이 모여 왁짝 떠들며 유쾌하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공을 던지는 아이들, 달리기를 하는 아이들, 철봉을 하는 아이들, 씨름을 하는 아이들 팽이를 치는 아이들…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놀음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수 많은 학생들이 조선 옷을 입고 조선 말로 왁짝 떠들며 명랑하게 노는 모습만을 보고도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감개 무량한 시선으로 여기 저기에 뛰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외조부의 뒤를 따라 운동장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 》

하고 부르는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어느덧 원수님의 손'가락을 꼭 잡으며 다짜고짜로

《형, 나 래일부터는 나 혼자서 세수할 테야.》

하고 말했습니다.

《또 고양이 세수하듯이 할려구?》

원수님은 사랑에 찬 시선으로 현수를 바라 보았습니다.

《아니야, 머리랑 목이랑 발이랑 다 씻을 테야.》

《됐어! 현수가 아주 훌륭한 학생이 되겠는걸! 》

원수님은 그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현수는 좋아라고 상긋 웃고 나서 다시 제 동무들이 있는 데로 달려 갔습니다.

원수님은 외조부를 따라 직원실로 들어 갔습니다. 직원실에는 4~5 명의 교원들이 있었습니다.

《만주에 가 있던 내 외손자요. 이리루 공부하러 왔소.》

원수님은 선생님들을 향하여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습니다.

《몇 학년에 입학하게 됩니까?》

검은 세루 양복을 입은 젊은 선생이 물었습니다. 어깨가 쩍 버그러지고 몸이 통통한 데 체육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누런 단추 다섯 개가 가지런히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중학교를 나온지 오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원수님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그 분에게 더 시선이 끌렸습니다.

《만주에서 소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강 선생네 학급에서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을 받아 보시오.》

《그렇습니까. 그럼 학생 이리로 오시오.》

원수님은 강 선생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갔습니다.

강 선생님은 원수님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만주에서 공부하던 형편을 간단히 물어 보더니 성적증을 들여다 보는것이였습니다.

《음! 모두 만'점이로구만! 》 하며 그는 매우 만족한 얼굴로 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학교에 다녔으니까 우리 글은 배우지 못 했겠지.》

《학교에서는 못 배웠지만은 집에서 어머니한테 좀 배웠습니다.》

《그것 참 잘 됐군!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 보라구! 》 하며 강 선생은

《조선어 독본 5권》 을 내주었습니다.

원수님은 책을 받아 들고 첫 페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우리 나라 글에 한문 글'자가 섞여 있는 책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책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거침 없이 줄줄 내려 읽었습니다. 책상에 마주 앉아 무엇인가 분주히 쓰고 있던 선생들도 글 쓰기를 멈추고 원수님의 굴 읽는 모습을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눈초리로 서로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였습니다. 창 밖에서도 아이들이 발 돋음을 하고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창 옆에 자리 잡은 선생은 아이들에게 연성 손'짓을 하며 물러 서라고 신호를 하였으나 아이들은 물러 설 줄은 모르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어느덧 원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들 속에 퍼졌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들은 어깨 싸움을 하며 창으로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무어라고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까지 들려 왔습나다.

그러나 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만했으면 실력을 넉넉히 알만도 하였는데 담임 선생은 그만 읽으라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선생들에게《 보시오.. 내가 담임하게 된 학생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는 자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님이 제 1 과를 다 읽은 후였습니다. 강 선생은 큰 목소리로 《됐어! 됐어! 》 하며 원수님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5 학년 용 산술책을 펴 놓으며 대분수 계산 문제를 풀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그 자리에서 쉽게 슬슬 풀어 놓았습니다.

뒤'짐을 지고 원수님 뒤에 서고 계산 해 나가는 글'발을 유심히 들여다 보던 외조부도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약간 끄덕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만한 실력이면 보습반 2 학년에서도 넉넉히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강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학년을 건너 뛸 필요야 없습지요, 1 학년에서 공부하게 합시다》

교장 선생의 말이였습니다.

이리하여 원수님은 보습반 1 학년에 편입하게 되였습니다.

원수님은 명랑한 기분으로 직원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때에 아이들이 원수님 곁으로 우르르 밀려 왔습니다. 그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듯이 모여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어제 기와집 마당에서 자전거를 밀어 주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구 이애는 골목 대장 윤병이라구 부른다》

덕범이는 뒤에 서고 있는 노상 으젓해 보이는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덕범이는 이런 식으로 제 또래들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학교에 새로 붙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너이들이 잘 배워다우》

《배워 달라구? 윤병이한테나 배워라 내나 인삼이한테서는 꼬물두 배울 게라군 없을게다. 글쎄 생각해 보렴아. 매일 먹는다는 건 락제국 밖에 없는데 뭘 배워 주겠니》 하며 덕범이는 코'살을 찡긋했습니다.

《너 요즘 허풍선이하구 친하게 놀더니 그 애를 닮아 가누나》

하고 윤병이가 말했습니다.

《어째서》

덕범이는 두 눈을 디굴디굴 굴리며 노상 울러멨습니다.

《너두 허풍을 떨기 말이다》

《허풍은 무슨 허풍?》

《너 요즘 허풍선이한데 배워 가치구 하따라 마따라 하면서 일본말두 곧잘하지 않니, 그런데 뭐 배워 줄 게 없다구? 그리구 락제국은 언제 먹었다구 대포를 놓구 있니 흥! 요즘 너이 집에서두 시래기 국 만 먹더구나》

윤병이가 이렇게 말하자 덕범이도 픽 웃고 말았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황순희

천리마로 달리는 영광스러운 조국에 또다시 휘황한 새 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해가 바뀌고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지나 온 해를 돌이켜 보며 희망찬 새 해에 대하여 또 당과 혁명 앞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생각하며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집니다.

이 해에도 동무들은 더욱 행복하여 질 조국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배우며 자라는 기쁨과 자랑을 안고 더 공부 잘 하고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새로운 결의를 다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새 해를 맞으며 나는 잡지 《소년단》을 통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내가 설 때마다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몇 마디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해마다 평양시 내 소년단원들이 학생 소년 궁전에서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와 춤으로 설을 맞는 모임에 참가합니다. 그 때마다 나는 무한한 행복과 자랑 속에서 새 해를 맞는 소년단원들의 자랑찬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주의 조국은 동무들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모두가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면서 즐거운 설을 맞군 합니다.

오늘 동무들은 이처럼 설을 행복 속에서 맞이하지만 지난날 동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런 행복한 설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인민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악한 왜놈들은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 인민들을 억누르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리하여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설날에도 이밥 한 그릇 못 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그 때의 설이란 부자'집 아이들에게만 즐거운 명절이였으나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눈물과 설음의 날이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나라의 애국자들은 조국 강토에서 원쑤 왜놈들을 몰아 내고 조국을 찾으며 소년단원들에게 오늘과 같은 행복과 이런 즐거운 설을 가져다 주기 위해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웠던 것입니다.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우리 아동단원들은 원쑤와 판가리 싸움을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설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 때 우리가 맞은 설이란 오늘 소년단원 동무들이 맞는 설과는 비길 수도 없는 정말 투쟁 속에서 맞는 설이였습니다.

왜놈들의 토벌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감행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싸우면서 설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설을 맞을 때마다 이러한 투쟁의 설이 거듭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과 같은 자유롭고 행복한 설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싸우며 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 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설이 오면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 아동단원들이 즐겁게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왜놈들에게서 빼앗은 옷과 신발, 학습장들을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선물을 받을 때의 우리들의 기쁨이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설날이면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배우며 자라는 아동단원들의 씩씩한 투쟁 모습과 원쑤를 무찌르는 용감한 유격대 아저씨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춤과 노래 그리고 연극 등을 꾸며 가지고 유격대 아저씨들과 유격 근거지 인민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설을 보람 있게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맞은 설이 해마다 이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우리는 설날에도 원쑤 왜놈들과 직접 싸우지 않으면 안 되였던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1934년 설이였습니다.

그 때 우리는 왕우구 유격 근거지에서 설을 맞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왜놈 《토벌대》놈들의 습격을 받게 되였습니다. 근거지 보초를 서고 있던 우리 아동단원 여섯 명은 그만 적들의 불의의 습격으로 대오를 잃게 되였습니다.

근거지에는 왜놈들이 몰려 와 지랄을 치고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미 약속돼 있는 대로 북동에 있는 유격대 아저씨들을 찾아 떠나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허리까지 치는 가시덤불 속 숫눈을 헤치며 걸어 나갔습니다.

며칠씩 심산 속에서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추위와 싸우며 행군한 우리들의 손발은 가시덤불에 긁히여 피가 흘렀고 동상으로 생긴 물'집이 터져 아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라도 좀 녹이려고 배낭 속에서 부시'돌과 부시'깃을(당시 성냥이 몹시 귀중하였다.) 찾았으나 모두 어디서 빠져 달아 났는지 없었습니다.

앞길은 멀었는데 벌써 몸이 약한 몇몇 동무들은 추위와 허기에 지쳐서 걸핏하면 눈'구멍에 빠져 넘어지군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웃옷을 벗어 입히기도 했고 나중에는 긴 나무'대를 꺾어 칡 넌출로 들채를 만들어 메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아동단원들의 마음은 모두 자기가 죽드라도 혁명 동지를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 뿐이였습니다.

밀림 속에서 마침내 1934년 새 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설날의 기쁨은 고사하고 불행이 각각으로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데다 몸에 열이 몹시 나서 김 순옥 동무가 끝내 위급해졌습니다. 우리는 순옥 동무에게 낟알 냄새라도 쐬우면 좀 나을가 하고 다시 배낭을 뒤졌습니다.

부스러진 옥수수 여덟 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덟 알의 옥수수를 돌에 빻아 눈을 입김에 녹인 물에 타서 순옥의 입에 가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슬퍼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 와도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유격대를 찾아 가자! 그리하여 유격대를 도와 왜놈들과 싸워야 한다. 이것이 혁명 동지의 원한을 갚는 길이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힘 있게 복수의 결의를 다지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길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누가 한 사람이라도 쓰러지면 부추켜 일으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낟알물 한 모금 못 먹고 추위와 싸우면서 우리는 맨 눈을 움켜 먹으며 걸었습니다.

눈을 헤치고 칡뿌리를 캐 내재도 꽁꽁 얼어 붙은 땅을 파 헤칠 수는 없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거기에다 피곤이 덮쳐서 더는 걸을 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는 사람도, 나무도, 바위도, 하늘도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짐작한 우리들은 《살아도 끝까지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하면서 희미해지는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힘 있게 어깨를 겯고 큰 잣나무에 기대여 섰습니다. 순간 우리들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아 떠난 유격대 아저씨들과 근거지 인민들이 마침내 눈 속에 파묻힌 우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사히 구원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옥 동무는 끝끝내 잃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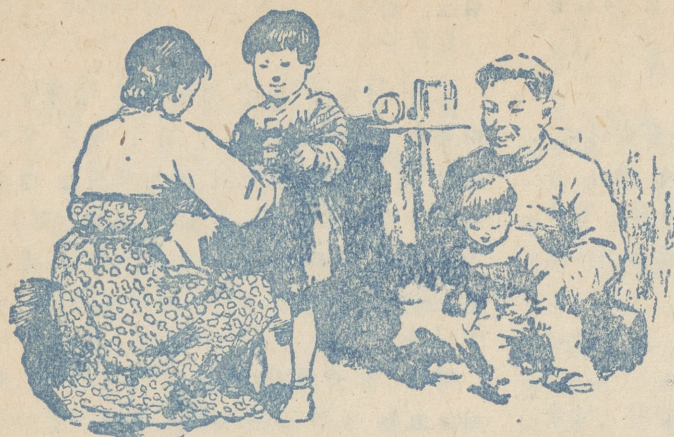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듯 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가 남긴 뜻은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력력히 살아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바로 동무들이 맞는 오늘의 이 행복한 설이 있기 전에 이처럼 피눈물 나는 설의 나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무들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오늘과 같은 행복한 설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수 많은 혁명 투사들이 피 흘리며 싸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아직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인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남조선 소년들은 동무들과 같은 행복한 설을 모르고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놈들의 구두'발 밑에서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매다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에 맞아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국놈들을 몰아 내고 남녘땅 동무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그림 양 재혁

설날 아침

—평양 방직 공장 소면 직장 로 금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설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는 명절 옷차림을 한 사람들로 물'결칩니다. 고운 옷차림을 하고 신년 축하 모임에 가는 소년단원들의 얼굴들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손에 끌려 극장, 영화관으로 가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도 설을 맞는 기쁨이 담뿍 어리였습니다.

로 금희 어머니네 집에서도 공장 구락부에서 열리는 신년 축하 모임에 갈 준비에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옷장문을 열고 설빔으로 만들어 둔 새 옷들을 꺼냈습니다. 금년에 여섯 살 잡이인 맏딸 정순에게는 빨간 치마에 색동 저고리를, 네 살 먹은 둘째 딸 명순에게는 진분홍 치마에 색동 저고리를 꺼내 입혔습니다.

새 옷을 입고 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춤을 추는 딸애들의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 보시는 어머니의 두 눈에는 어쩐지 이슬 방울이 맺힙니다.

어머니는 이 좋은 날에 어찌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을가요.

그것은 딸애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의 행복에 대한 감격과 함께 지난날 어머니의 비참했던 어린 시절 생각이 나서이지요.

× ×

정순이 어머니네 고향은 경상 북도 의성군 양평면 기산동이였습니다. 어머니네는 쓰고 살아 갈 변변한 집 한 간 없어서 마을 어귀에 움'집을 짓고 근근히 살아 갔습니다.

아버지는 사방 떠돌면서 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순이 어머니가 다섯 살 되던 해 평택 철도 공사장에 끌려 가 일하시다가 그만 무너지는 돌담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가뜩이나 가난에 쪼들리던 집 살림은 더욱 말이 아니였습니다.

정순이 어머니가 여섯 살 되는 해 설날이였습니다. 집에서는 쌀이 없어서 이웃집에서 두부를 만들고 버린 비지를 얻어다 아침 요기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콰당 콰당》 널 뛰는 소리와 아이들이 밀려 다니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순이 어머니는 부러운듯 뚫어진 창'구멍으로 물끄러미 밖을 내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나가 놀고 싶었지만 누더기를 걸치고 나가면 애들이 또 몰려 와서 놀려 줄 터이니까요.

어머니가 창'가에 서 있는 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헌 누더보를 고르시더니 《새 옷》 두 벌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 조각의 천을 무어서 만든 흰 치마와 울긋불긋한 색천을 무어 만든 저고리였습니다.

정순이 어머니는 옷을 보기가 바쁘게 와락 그러안았습니다. 그는 얼른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새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치마는 천이 모자라서 겨우 앞만 가리우게 만든 앞치마였습니다. 그래도 정순이 어머니는 좋았습니다. 《새 옷》을 입으니 몸도 홑가분하고 막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춤을 추었습니다.

부자'집 애들의 옷에는 비할 나위도 못되지만 그런 것이라도 입으니 정순이 어머니에게는 부러운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날의 설 명절은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설음과 눈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 ×

정순이 어머니는 딸애 형제의 손을 이끌고 공장 구락부로 향했습니다.

구락부 안은 곱게 입은 옷차림들로 하여 마치 꽃밭과도 같이 아름다왔습니다. 정순이의 어머니는 정전 후 처음으로 맞던 명절날이 생각키웠습니다.

그 때 정순이 어머니는 단벌 밖에 없는 솜옷을 입고 명절을 맞았습니다. 미국놈들의 폭격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생활은 얼마나 몰라 보게 달라졌습니까.

정순이 어머니는 자기들을 이처럼 행복에로 이끌어 주시는 당과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새 해에도 더 많이 일하리라고 마음 속으로 다지였습니다.

정순이 어머니의 앞가슴에 단 국기 훈장과 공로 메달은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말해 주듯 새 해 첫 아침의 붉은 해'살을 받아 더욱 반짝이였습니다.

(동시)

비단 짜는 누나

안 룡 만

세상에 소문난 약산 동대
봄이면 산 언덕에 피는 진달래,
녕변의 진달래는 봄만 아니라
여름에도, 가을에도 피여 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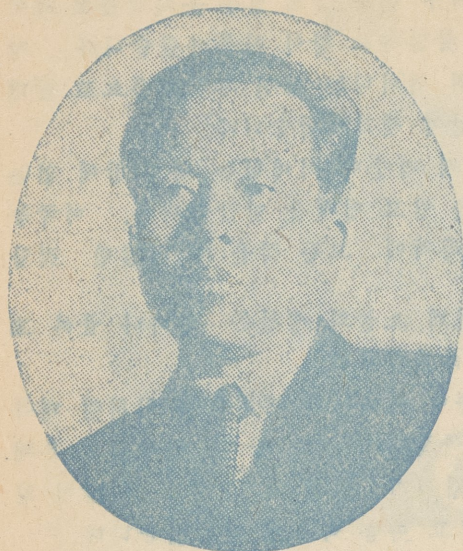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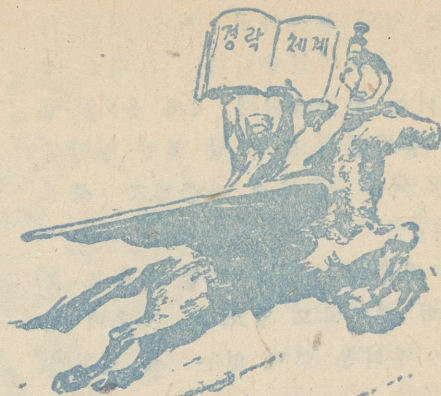
무슨 진달래가 그런 게 있냐구요?
글쎄 글쎄 이야길 들어 보세요.
이 꽃은 견직 공장 누나들 짜는
비단천에 송이송이 피는 진달래…

북소리, 바디소리 울리며
오리오리 실오리마다 정성을 담아
우리 누나 짜 내는 약산단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꽃 무늬—

그래요. 봄 한철만 아니라
사시절을 언제나 곱게 피지요.
누나들의 붉고 붉은 마음
무늬마다 아롱아롱 떠오르지요.

날마다 필필이 비단을 짜며
누나들은 남녘 땅을 생각합니다.
제 손으로 짠 비단을 한아름 안고
그리운 동무들을 찾아 가고 싶다고…

참말 참말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 땅에 있는 누나들에게
약산단으로 치마 저고리 만들어
한 벌씩 입히면 얼마나 기쁠가!

삼천리를 붉고 붉은 진달래
비단으로 덮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렇다. 우리 누나 뜨거운 마음
애타게 기다리는 통일의 날은 올테다.

박사 교수 김 봉한 선생

세상 사람들을 놀래운 위대한 발견

박사 교수 주 민순

우리들이 병원에 가면 갑자기 배를 그러안고 돌아 가던 환자도 침이나 뜸을 놓게 되면 얼마 후에 끈 일 없는 것을 보군 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와서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도 침이나 뜸을 가지고 고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가요.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침이나 뜸으로 모든 병을 고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 놓는 자리(경혈)와 침의 효과가 나타나서 전달되여 가는 길(경맥)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의학자들은 앓는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것은 침과 뜸을 놓으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신경이나 혈관에 의하여 고쳐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수천년을 내려 오면서 많은 연구를 하여 왔으나 끝내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어 내지 못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를 우리 로동당 시대에 와서 당에 의하여 자라 난 조선의 붉은 과학자인 박사 김 봉한 선생님과 경락 연구 집단이 발견해 낸 것입니다. 이리하여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생물학과 의학은 우리의 몸과 주위 환경과의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경이나 몸에서 나오는 물질인 체액이란 물질에 의하여 신체가 조절되고 지배된다고만 생각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뛰놀며 공부하며 유쾌하게 노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신경 계통이나 내분비 계통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는 신경 계통과 내분비 계통 외에 다른 계통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동차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봅시다. 자동차는 그것이 어떤 때는 빨리도 가며 또 늦게 가기도 합니다. 또한 사방으로 마음 대로 가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마음 대로 가는 것을 조절하는 것을 운전수만 있어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운전수도 있고 휘발유와 기름도 있어야 하고 기계들이 모두 고장 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동차와 같이 우리의 몸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지금까지 생각하여 온 신경 계통이나 내분비 계통만으로는 설명되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경락 계통을 김 봉한 선생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학은 지금까지 신체 내에 있는 기관들(심장, 폐, 간…)의 자유로운 활동은 신경이나 혈관, 림파관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활동하는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 많은 것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 봉한 박사는 이 때까지의 이 리론에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경락 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김 봉한 박사가 발견한 경락 계통이란 어떤 것일가요?

경락 계통이란 신경 계통이나 혈관 계통과 같이 우리 몸이 마음 대로 활동하는 것을 임의로 조절하고 지휘하면서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락 계통은 봉한 소체와 그를 련결하고 있는 봉한관으로 되여 있습니다.

철로를 례를 들어 생각하여 봅시다. 봉한 소체는 정거장과 비길 수 있으며 봉한관은 철'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때까지 우리 선조들은 침을 놓는 자리(정거장)를 경혈이라 불렀습니다. 만약 침을 놓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서 전신에 퍼지는 것입니다.(정거장에서 기차가 떠나가듯) 이 길을 경맥이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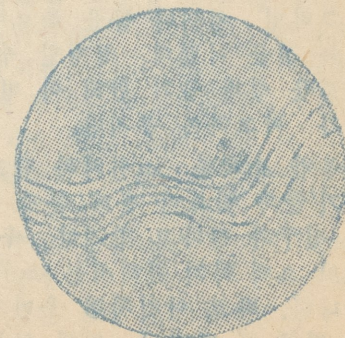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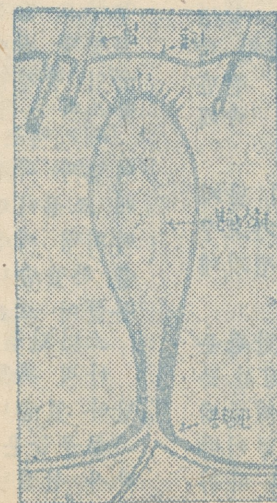
그러나 이 때까지 사람들은 그 경맥과 경혈의 구조가 어떻게 되였으며 몸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김 봉한 박사는 그 경혈과 경맥의 구조와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과 국가에서는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김 봉한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경혈을 봉한 소체로, 경맥을 봉한관이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 봉한 선생님은 봉한관 내에 액체가 흐른다는 것도 알아 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봉한액이라고 부르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봉한 소체, 봉한관, 봉한액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있을가요?

봉한 소체는 피부의 얇은 층에도 있고 신체의 아주 깊은 내장 속에도 있답니다.

피부의 얇은 층에 있는 것을 표층 봉한 소체, 신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심층 봉한 소체라고 합니다.

봉한 소체가 있는 곳은 피부가 다른 곳보다 더 번들번들하고 누르스름합니다. 봉한 소체의 모양은 마치 벼알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벼알이 껍데기와 알로 된 것과 같이 봉한 소체도 겉질과 속질로 되였습니다. 속질 속에는 눈으로 보기 어려운 진득진득한 봉한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봉한 소체의 길이는 약 1~3 mm 정도이고 그 너비는 0.5~1 mm 정도입니다. 봉한 소체의 끝으로부터는 묶음으로 된 봉한관이 달리고 있습니다.

봉한 소체에 침을 놓으면 어떻게 될가요? 침을 놓으면 침이 좌우로 혹은 앞뒤로 움직이거나 뱅글뱅글 돌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기한 현상을 경락 연구 집단에 있는 김 세일 선생님이 발견했다 하여 김 세일 현상이라고 합니

이것은 표층에 있는 봉한 소체와 봉한관.

이것은 맥관 내 봉한관입니다.

다. 봉한 소체에 침을 꽂았을 때 침이 움직이는 것은 봉한 소체가 특별한 움직이는 근육(활평근)으로 되여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심층 봉한 소체는 표층 봉한 소체보다 그 길이가 약간 큽니다. (3~7 mm).

여러 봉한 소체는 서로 봉한관으로 련결되여 있습니다. 표층 봉한 소체와 련결된 관을 표층 봉한관이라 하고 심층 봉한 소체와 련결된 것을 심층 봉한관이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가 흐르는 혈관 안과 림파관 내에도 봉한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혈관 안의 봉한관을 맥관 내 봉한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일명 박정식 봉한관이라고도 합니다.

봉한 소체에 있는 봉한액은 이 봉한관을 통해 온 몸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한액은 봉한관을 통해 생체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내장인 심장, 폐, 간장, 위, 신장, 소장, 대장 기타 여러 곳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한액은 어떤 것일가요?

봉한액은 색이 없고 약간 투명한 데다 좀 진득진득한 성질이 있습니다.

동무들은 사람의 몸이 수십만의 세포들로 구성되였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 안에는 핵산이란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핵산이 세포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번에 김 봉한 박사 선생님은 핵산이란 물질이 세포 뿐만 아니라 봉한관 내로 흐르는 봉한액 속에 대단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침이나 뜸을 놓으면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가요? 이것을 쉽게 알기 위해 이 번에는 전기에다가 비교하여 봅시다.

봉한 소체란 스위치와 같고 봉한관은 전기'줄과 같으며 우리 몸에 병이 생긴 곳은 전구와 같다고 합시다. 우리가 전구에 불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넣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위가 아파서 덩굴 때 다리나, 배에 있는 봉한 소체에 침을 놓으면(스위치를 넣으면) 봉한액은 봉한관을 따라(전기'줄을 따라) 흘러 위에 가서(전구에 가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불이 켜지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곧 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 봉한 박사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어떤 길을 걸어서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 봉한 박사가 발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 봉한 박사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이 발견한 이 위대한 발견은 과학에서 어떤 큰 의의를 가지겠습니까?

이 때까지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에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였겠는가를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지만 아직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봉한 선생님이 발견한 모든 것은 아직 정확히 대답 못 한 이 문제에 과학적 대답을 줄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병 없이 오래 오래 살 수 있겠는가, 또한 사람들이 일을 한 후에 느끼는 피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겠는가 등 그 방법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대 의학으로써는 잘 고칠 수 없다던 여러 가지 중한 병도 다 고칠 수 있게 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수백년을 두고 수 많은 세계의 과학자들이 일생을 바쳐 가며 연구하였으나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 한 경락 계통을 오늘 로동당 시대—김 일성 시대의 조선 사람들이 발견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과거에는 나라를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를 당해 오던 조선 민족, 세상에 조선이란 빛마저 잃었던 조선 사람이 이처럼 세상 사람을 놀래운 위대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까.

소년단원 동무들!

아직 과학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동무들은 꾸준히 학습을 하여 김 봉한 박사 선생님처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비밀을 알아 내는 앞날의 붉은 과학자, 발명가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인삼이가 깨달은 것

평남 숙천군 숙천 중학교 제 15 분단에서
본사 기자 조 병 권

방과 후이다. 손에 손에 책가방을 든 소년단원들이 왁짜그르르 떠들면서 교문으로 밀려 나온다. 방금 민청 제 5 차 대회를 최우등으로 맞이하자는 분단 총회가 끝난 것이다.

《애들아! 오늘 분단 총회 결정을 꽤 해낼가?》

《넌 금방 손을 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너 말이 쉽지 54 명이 다 최우등생이 된다는 게 쉬울 줄 알아?》

《씨, 하자꾸나 하면 못 할 게 뭐니, 인삼이를 보려마.》

누군가가 인삼이의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들 더 말을 못 한다.

그럼 인삼이란 어떤 애이기에 최우등이 힘 들다던 아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을가?

× ×

리 인삼은 분단에서도 학습에 가장 뒤떨어진 동무였다. 그는 장난에만 정신이 팔려서 학습을 게을리 했다. 그러기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당해도 제대로 대답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시험을 치면 언제나 2 점이 아니면 고작해서 3 점이였다.

분단 위원회는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끝에 학교에서는 최우등생인 차 순봉 동무가 그와 한 책상에 앉아 공부를 도와 주게 했고 집에 돌아 간 후에는 인삼이네 집에다 직접 반실을 정해 놓고 반 동무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면서 그를 도와 주게 했다. 그러나 인삼이는 이 모든 것을 그리 달가와 하지 않았다. 그래 동무들이 공부하러 찾아 갔다가도 인삼이가 어디로 달아나 밤 늦도록 들어 오지 않아 그 대로 돌아 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동무들은 말 없이 그를 도와 주었다.

어느 날 분단 동무들은 인삼이의 산수 시험 답안지와 함께 마분지로 만든 사과 모형들을 안고 왔다.

산수 중간 시험에서 통분 방법을 몰라 2 점을 받은 인삼에게 실물로 통분 방법을 대 주자는 것이다. 동무들은 이 날 사과 모형을 나누어 놓고 설명하면서 통분 방법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었다.

인삼이를 도우려는 소년단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보는 인삼이의 어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날 인삼이 어머니는 몹시 미안해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까지 이렇게 수고를 끼쳐서 안 됐다. 나도 너희들을 돕겠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인삼이를 앞에 불러 앉히였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지주'집 머슴으로 들어 가 소먹이와 아이보기를 하며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자라던 서러운 이야기를 들려 주시였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인삼아, 그런데 넌 왜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 하느냐? 넌 너에게 그처럼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를 생각 못 하는 애다. 네가 공부하지 않아서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할 건 누구냐? 그건 어머니를 소처럼 부려 먹던 지주놈

들이란다. 남조선에는 아직 이런 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 노여움이 섞인 어조로 인삼이를 책망하시였다.

아버지도 가끔 인삼이를 앞에 놓고 앞날의 발전된 우리 나라의 공업,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서 공부에서 락제를 해 가지고서는 기계화, 자동화된 앞날의 공업, 농업을 움직이는 나라의 참된 일'군으로 될 수 없다고 타일려 주시였다. 그리고 나라와 인민을 위해 훌륭히 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거듭 말씀해 주셨다. 인삼이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인삼이는 차츰 자기 학습을 돕기 위해 애 쓰는 동무들의 따뜻한 우정을 저버린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계속 그에게 학습에 취미를 붙여 주기 위해 힘 썼다. 최우등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며 공부하는가 그 방법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들과 직접 함께 공부하게도 했다.

여기에서 그는 남들이 최우등을 하는 것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참말로 노력의 결과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였다.

이런 때 분단에서는 선생님과 의논하여 이름난 위인들,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말해 주는 흥미 있는 모임을 조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삼이가 공부 시간에 선생님의 물음에 훌륭히 대답하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맞으면 그를 칭찬하는 내용의 글을 제때 제때에 벽보에 냈다.

한편 분단에서는 그에게 책에 취미를 붙여 주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우리 나라 력사 이야기》, 《재미 있는 물리 실험》 등 학습에 도움이 될 책들을 빌려다 주고 읽도록 했다.

책을 읽으면서 그는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중등반 2학년 력사 시간이였다. 선생님은 복습 정형을 알아 보기 위해 전 시간에 배운 《우리 글'자의 창조》에 대해 물으시였다.

인삼이는 일어 서서 교재의 내용과 함께 《우리 나라 력사 이야기》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까지 덧붙여서 우리 글'자가 나오게 된 이야기와 우리 글'자가 얼마나 좋은가를 쭉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어떤 동무들은 인삼이가 교과서에도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서 주어다 붙이는가 해서 틀린 대답이라고 머리를 흔드는 애들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의 대답이 끝나자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인삼동무는 요즘 독서를 많이 해요.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을 압니다. 독서처럼 좋은 학습은 없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시였다.

그 후부터 인삼이는 책 읽는데 재미를 붙여 더 많은 책을 읽었다. 그는 두터운 책들도 한 주일에 한 권씩 떼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분단에서는 들로 자연 관찰을 나가게 됐다. 선생님은 메뚜기 한 마리를 잡아서 인삼에게 주면서 메뚜기의 고막을 찾으라고 하셨다.

동물 시간에 《메뚜기의 생활과 겉 모양》을 배울 때 선생님이 메뚜기의 표본을 가지고 들어 와서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때 인삼이는 관찰하지도 않았다.

인삼이는 고막이라면 의례히 다른 동물들과 같이 귀에 있을 것이고 귀는 대가리에 붙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참이나 찾다가 메뚜기의 눈을 가리켰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벙실벙실 웃으시면서 메뚜기 배의 첫째 마디 량 쪽에 있는 타원형의 고막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청각 기관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선생님은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시며 관찰하고 실험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부터 인삼이는 물리, 식물, 동물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찰하고 실험해 보기에 힘 썼다. 동물 과목에서 가금에 대한 것을 배운 뒤였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닭을 해부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느 날 집에서 닭을 잡게 되였다. 인삼이는 닭을 잡는 곁에서 닭의 소화 기관, 호흡 기관의 생김, 배설 기관의 구조 등을 세밀히 관찰했다.

이렇게 직접 제 손으로 실험하고 관찰한 것은 잊어지지 않고 언제나 머리 속에 환히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선생님이 무엇을 물어도 그는 거침 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인삼이에게는 《기억》이라는 자그마한 수첩이 있다. 여기에는 각 과목에서 반드시 외워 두어야 할 내용을 모두 적어 넣는다. 수학에서 정리, 정의, 규칙, 공식, 물리에서 법칙, 공식, 력사에서 년대, 인명, 동물에서 골격 구조, 화학에서 화학기호 등을 적어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다. 그리고 때로는 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일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그 공식에 맞추어 풀어 보기도 했다.

무연탄은 왜 물로 이겨 때는가?

무연탄을 피울 때 우리는 물에 이겨 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하고도 재미 있는 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인데…

왜 그럴가요?

그것은 석탄을 물로 이기고 열을 가했을 때 수소와 함께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매우 쉽게 타는 물질이므로 무연탄은 잘 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연탄에 흙을 섞어 물로 이기면 그것이 한데 덩어리가 져 마르면서 공기를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불이 더 잘 붙게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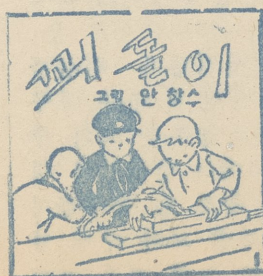
이렇게 2년여에 걸치는 인삼이의 꾸준한 노력은 마침내 최우등의 영예를 지니게 했고 오늘에 와서는 분단 위원으로까지 선거 받게 된 것이다.

× ×

소년단원들은 잠시 말 없이 걸었다. 최우등이 힘 들다고 걱정하던 애가 문득 입을 열었다.

《정말 그래. 문제는 노력이야, 인삼이처럼만 노력하면 최우등은 다 할 수 있어.》

《그러기 모두가 노력하구 좀 뒤떨어진 동무들은 집단이 달라붙어서 도와 주기만 하면 최우등을 못 할 사람이 없어.》

주춤했던 이야기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주고 받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한결 같이 최우등 분단의 영예를 쟁취하고야 말리라는 확신에 찬 표정들이 어리고 있었다.

본사 기자 연 일 덕

지금 우리 나라의 소년단원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가는 곳마다에서 나라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며 앞날의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리원시 내 소년단원들 속에서 꽃피여 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몇 토막을 소개합니다.

두 송이의 꽃

포—신천행 렬차가 사리원역을 지나 막 신천을 향해 질풍 같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창 밖으로 조선 로동당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래년에 더 많은 벼를 내려고 논 푸는 일에 나선 협동 농장원들의 힘찬 투쟁 모습을 바라 보며 흐뭇한 마음으로 려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니 웬 일이요? 역도 아닌 데서…》 하고 손님들은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러나 잠간 섰던 렬차는 다시 요란한 기적을 울리며 떠나 가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이 때였지요.

《손님 여러분! 방금 전에 철로 우에서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두 송이의 꽃이 피여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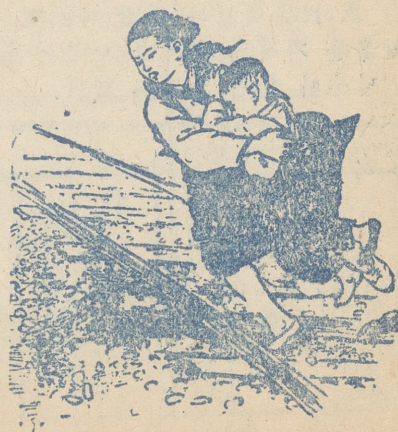
《두 송이의 꽃? 무슨 말이요?》

손님들은 렬차 방송실에서 울려 나오는 방송원의 감격 어린 말'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금 이 렬차가 달리는 철로 우에서 유치원 어린애 두 애가 놀고 있었는데 그들은 기차가 막 달려 오는 것을 모르고 장난에 팔려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였습니다. 마침 이 때 철'길 옆으로 지나던 두 소년단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구원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교대 부속 중학교 11 분단의 원 화자와 안 금선 동무들이였습니다.

이들은 그 날도 인민반 동생들의 학습을 도우려고 이웃 부락을 찾아 가고 있었지요. 이들이 굽인돌이를 돌아 서는 순간 요란한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 본 순간 화자와 금선이의 눈앞에는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차가 달려 오는 철'길 우에서 유치원 어린애 두 애가 어쩔 바를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다가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각각으로 가까와 오고 있었습니다.

《어마나!…》 화자와 금선이는 소름이 끼쳐서 앞뒤를 돌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퍼그나 높은 철'길둑엘 어느 새에 뛰여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기차가 달려 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화자가 먼저 한 아이를 끌어 안고 둑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뒤미처 금선이가 또 한 아이를 안고 돌아 서려 할 때였습니다. 그런 차에서 내뿜는 증기에 휩싸여 그는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 없이 어린애를 부둥켜 안고 둥'둑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침 이 때 기차가 지나친 것이였습니다. 차는 그 곳을 퍼그나 지나서야 멎었습니다.

굽인돌이를 돌다가 아이들을 본 기관사 아저씨가 재빠르게 기관차를 멈춘 것인데도 달리던 힘에 끌리여 그 곳을 지나친 것이였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였지요.

기관사 아저씨는 두 어린 꽃봉오리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참 너희들이 로동당 시대의 훌륭한 소년단원들이다!》

렬차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손님들도 감탄을 금치 못 했습니다.

누구였을가?

요일 아침이였어요. 동리 중학교 9 분단(모범 분단)에는 아침부터 수수께끼 풀이가 생겼습니다.

밤 사이에 교실이 몰라 보게 달라진 것이 아니겠어요. 벽에는 새하얗게 회칠을 하고 칠판과 책상에는 먹칠을 하여 교실에 들어 서는 분단 동무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누가 하였을가?)

그러나 그런 좋은 일을 한 주인공은 나타나질 않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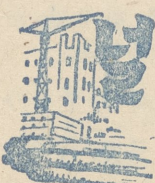
분단에서는 언제나 책상과 걸'상이 삐걱 소리만 나도 제때에 고치군 하는 전 무선이와 한 영애를 두고 늘 칭찬해 왔지만 밤 사이에 생겨난 이런 좋은 일은 또 누가 했을가? 모두 고개를 기웃거리고만 있였지요. 그런데 동무들의 시선은 어느새 영애와 무선이의 얼굴에 가 멎었습니다.

동무들은 아직 그들의 손에 먹물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분단 동무들은 모두 무선이와 영애에게 《너희들이 또 했구나!》 하고 와락 달려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간 얼굴이 붉어지며 《아니야. 우린 어제 어머니를 도와 석탄을 날라서 그래.》 할 뿐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무들은 두 동무의 붉어진 얼굴을 보며 이것은 그들이 한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선이와 영애의 아름다운 마음은 서른 네 명 분단 동무들의 마음을 몹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분단에서는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피여 나고 있습니다.

한 장의 널판자

판자를 가득 실은 자동차 한 대가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달리던 자동차는 둔덕진 곳(수도관을 묻느라고 파 놓은 곳)을 넘느라고 덜컹거리더니만 다시 스르르 미끄러지듯 동사리원 쪽으로 내달리는 것이였습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건설장으로 달려 가는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이 때 마침 이

곳을 지나던 소년단원 한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켜 섰다가 자동차가 지나가자마자 어째서인지 《운전수 아저씨—》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였어요.

그러나 운전수 아저씨는 듣지 못 하고 그만 계속 달리고 말았지요.

그가 운전수 아저씨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니라 자동차에서 널판자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널판자는 건설장으로 가던 것인데, 이것이 건설장에 가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널판자를 둘러 메고 차가 달려 간 동사리원쪽 건설장을 찾아 달려 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 간 그는 숨을 태울 새도 없이 방금 짐을 부리우고 있는 운전수 아저씨를 바라 보며

《아저씨! 이 널판자를 저 서사리원 시장 옆에서…》 하고 메고 간 널판자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주루루 흘러 내렸습니다.

소년단원의 기특한 마음씨에 감동된 운전수 아저씨와 건설장의 아저씨들은

《학생은 어느 학교 몇 학년의 누구지?》

그러나 그는 《그건 알아서 무엇 하시나요.》 하고는 수집은듯 그 길로 되돌아서는 것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언제나 학교를 사랑하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서리 중학교 7 분단의 김 영태 동무였답니다.

눈 내리는 밤에

둠이 깃들자부터 맵짠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일기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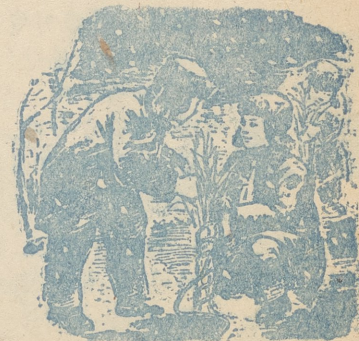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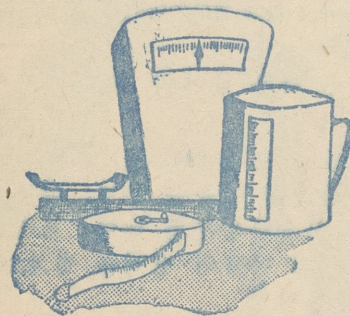
그런데 사리원 아동 공원에는 벼'짚을 한아름씩 안은 세 소년단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쏜살같이 어린 나무 곁으로 다가 가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더니만 호호 입김으로 손을 녹여 가며 어린 나무에 벼'짚 옷을 입히는 것이였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것을… 이리하여 순식간에 여덟 그루의 나무에 《옷》을 입혀 주고는 만족한듯 서로 마주 보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록화 사업소 아저씨들에게서 무궁화 여덟 그루를 얻어다 이 공원에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이 나무들을 벼'짚으로 싸 주지 못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들은 이처럼 벼'짚을 가지고 와서 이 나무들에 《옷》을 입혀 주는 것이랍니다.

이들이 일을 다 끝내고 공원을 나설 때 《벼'짚옷》을 두툼히 입은 이 무궁화나무들은 몰아치는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고 마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들일가요?

이들은 언제나 마을을 사랑하고 꽃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리원시 서리 중학교 7 분단의 한 영봉과 리 병일, 김 성만 동무들이랍니다.

김 봉린

우리 생활에서는 자주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을 재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무엇을 재는 표준을 척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무엇이건 재는 일은 오랜 옛날부터 진행하여 왔습니다.

사람들의 첫 계산 도구는 손'가락, 손 발 및 신체의 기타 부분들이였습니다.

이런 원시적 방법들 중에서 몇 가지는 오늘날까지도 그 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례를 들면 길이나 부피를 재일 때 우리는 흔히 자 대신에 뼘이나 발, 발'걸음 등으로 재는 것이 그것입니다.

후에 와서 길이를 재는 표준 단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곡물의 크기를 사용한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기술 부문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인치》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것은 최초에는 엄지 손'가락 마디의 길이였으나 1324년에 영국에서는 《인치》를 이삭의 중간 부분에서 떼여 낸 보리알 세 개를 서로 맞붙인 길이와 같은 것으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기장알 90 개를 옆으로 나란이 하여 1 척으로 삼은 률관척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을 서로 사고 바꾸는 일이 생김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의 량을 재일 필요성이 생기게 되였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그의 량을 부피(두께)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례를 들어 곡물과 액체 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일정한 크기를 가진 그릇에 채워서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재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솜이라든가 그 밖의 많은 물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재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지레의 원리를 리용한 대 저울로 달아서 무게로 물건의 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발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대 저울을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많은 력사적 유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기원 전 2천 년대에 속하는 에지프트의 옛주민들의 기념비에 대 저울들을 그린 그림이 많이 발견되였으며 기원 전 1천 년대의 희랍 그림에서는 저울을 사용한 장면이 매우 많이 발견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곡물은 역시 무게의 단위를 선택할 때에도 리용되였습니다. 나중에 와서 일정한 부피의 그릇을 물로 채워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의 뼘이나 발, 발'걸음 또는 곡물의 례 등으로는 그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이는 단위로는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의 키가 같지 않고 팔의 길이, 손'가락의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곡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률관척의 례만 들어도 기장알이 건 땅과 메마른 땅 또한 지방에 따라 각각 그 형태와 크기, 길이들이 다르므로 척도의 기준을 삼기 어려운 것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문화가 발전하고 지방과 지방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과 무역이 발전하게 되면서 하나의 원칙에 립각한 통일적인 척도법을 요구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18세기 말에 불란서 학자들은 그 전의 낡은 척도법을 버리고 파리를 지나는 자오선의 길이를 재여 이 자오선의 길이의 사천만분의 일인《메터》를 길이의 단위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4°C의 물 1 립방 데시 메터의 무게(질량)를《킬로 그람》의 크기로 정하였습니다.

이리하여 90%의 백금과 10%의 이리듐과의 합금으로 메트르와 킬로 그람을 표시하는 원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원기는 1889년 제 1 차 도량형 일군 대회에서 국제 원기(모든 나라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것)로 쓰게 되였고 이를 파리 부근 세브르에 있는 국제 도량형국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기와 같이 만든 원기의 부본들은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보관하고 기본적인 도량형 원기로 삼고 있습니다.

새로운 척도법의 매개 척도는 그 아래의 작은 척도보다 10 배 만큼 더 커야 한다는 것이 제정되였습니다.

동무들도 아는 바와 같이 큰 단위의 척도 명칭을 표시하기 위하여서는 기본 단위의 명칭 앞에 희랍어《데카》—(십),《헥트》— (백),《킬로》—(천) 등을 붙이고 작은 단위를 표시하기 위하여서는 라틴어《데시》—(십),《센치》—(백),《밀리》—(천) 등을 붙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척도법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였으며, 약 100 년이라는 시일이 걸리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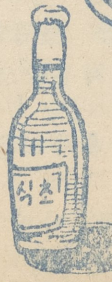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척도들을 정확히 취급하며 이것을 재는 기구들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자를 칼로 깎거나 실험을 할 때에 분동을 손으로 만지거나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아래에 아직 우리 나라에서 때때로 사용되고 있는 낡은 척도와 국제 척도 사이의 환산법의 몇 가지 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	환 산 법
길이	1리≈0.4 킬로 메터 (km) 1자(척)≈33.3 센치 메터(cm)
면적	1평(6자×6자)≈3.305 평방 메터(m^2) 1반보=300 평 1정보=3000 평≈9,915 평방 메터≈0.009915 평방 킬로 메터 10아르(a)=100 평방 메터 1헥다르(ha)=100 아르
부피	1되=10홉≈1.8 릿터(ℓ), 1릿터=1,000 립방 센치 메터 1말= 10되 1섬(석)=10 말
무게	1근≈0.6 킬로 그람중(kg중)

동무들은 다음 문제에 대해서 해답해 보십시오.

첫째, 일상 생활에서 길이, 면적, 부피 및 무게 측정의 례들을 들고, 어떤 측정 기구들을 사용하는가를 말해 보십시오.

둘째, 우리 나라의 면적은 정보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째, 백미 10만 석을 무게의 단위—톤중으로 환산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승리 58 형 자동차에 싣는다면 몇 대에 실어야 하겠습니까?(백미 한 말은 대략 15 kg중 정도이며, 승리 58 형 자동차의 적재량은 2.5 톤중이다.)

네째, 마분지를 가지고 한 홉의 모형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 홉은 한 변이 5.65 cm인 립방체의 크기와 대략 같다.)

☆

가정에서 쉽게 치료하는 병

감기

열이 오르면서 머리가 아플 때, 파를 넣고 흰 죽을 쑤어 식초를 쳐서 먹은 다음 땀을 내면 몸이 거뜬하게 풀린다.

식초

새힘을 막을자 세상에 없다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에 참가하고—

소년단원 동무들! 쟈카르타에서 진행된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신문이나 방송을 들으며 얼마나 가슴을 들먹였습니까!

동무들은 아마 그처럼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 온 선수들을 만나 보고 싶고 또 그들한테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편집부는 이 번 가네포에 참가했다 돌아 오신 김 성환 아저씨의 이야기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공화국기를 우러러 온 세상 사람들이 환호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가네포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나 먼 적도의 섬나라 쟈카르타에 가 있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영웅 조선의 아들딸로 태여난 기쁨과 자랑으로 하여 감개 무량한 나날이였습니다.

가네포가 진행되는 기간 쟈카르타의 경기장과 체육관 그리고 거리마다에서는《조선! 조선!》하는

환성과 박수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실로 우리 나라 선수들이 거둔 성과로 하여 쟈카르타의 하늘에는 련'이어 공화국기가 오르고 우리 나라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후더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제 나라 기'발을 당당하게 앞가슴에 달고 국제 경기에 나가 본 일이 있었으며 언제 남의 나라 상공에 조국의 기'발을 자랑차게 휘날려 본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과 조국을 가졌음으로 하여 모쓰크바와 와르샤와, 쁘라가와 부다페스트, 베르린 그리고 일본의 가루이자와, 인도네시아의 쟈카르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공화국 기'발을 자랑차게 휘날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 공화국 기'발을 우러러 환호를 보냈으며 우리 영웅 조선의 청년들을 무척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이번 가네포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우리 나라 선수들이 세계 신 기록을 세우며 모든 경기 종목들에서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성과를 거두어 계속 공화국 기'발이 하늘 높이 오르고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조선!》 하는 웨침 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으니 말입니다.

경기 첫 날에 벌써 우리 나라 리 흥천 선수가 력기 56 kg 급 용상에서 세계 신 기록을 수립한 데 뒤'이어 녀자 400 m와 800 m, 륙상 경기에서 거듭되는 세계 신 기록 (800 m 1 분 59 초, 400 m 51 초 4)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모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우기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마라손에서 또 우리 선수들이 1 등, 2 등을 모두 차지한 그것이였습니다. 전 만흥 선수는 모닥불처럼 뜨거운 열풍이 불어 오는 적도의 무더위를 무릅쓰고 105 리 길을 달리여 1 등의 영예를 지니였고 2 등을 한 황관탁 선수도 전 만흥 선수와 5 ~ 6 m 차이를 두고 뒤따라 결승점에 들어 섰습니다.

이 때의 감격적인 광경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선수들은 련'이어 《조선!조선!》 하는 환호성과 5 각별 찬란한 공화국 기'발이 쟈카르타의 하늘 높이 오르고 우리 나라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리는 가운데서 계속 천리마 조선의 기상을 떨치고 또 떨치였습니다.

우리 나라 김 완홍 선수가 80 kg 급 유술 경기(개인전) 결승전에서 키가 6 척이나 되고 황소 같은 몸뚱이를 가진 쏘련 선수 까리시크를 했다 꿇고 당당하게 1 등을 했을 때도 쟈카르타의 하늘에 공화국 기'발이 높이 올랐고 사람들은 이 기'발을 우러러 또 환호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권투, 레스링, 축구, 탁구, 롱구, 배구, 수영에서도 모두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이름을 떨친 것은 체육 뿐이 아니였습니다. 이 번에 체육단과 함께 간 평양 가무단의 예술 공연은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 모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구라파 사람들에게 조선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관중들은 우리 나라 예술을 보고 모두 《조선 예술은 천사의 예술》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만 선택한 예술》이라고 모두 황홀해서 엄지 손'가락을 내 보이며 《조선! 조선》하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번 가네포에서 사람들은 왜 그처럼 우리에게 환호를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웅 조선의 청년들이 발휘한 뛰여난 기술과 고상한 도덕 품성에 모두 탄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번 가네포에서 우리 선수들은 도합 143 개의 금 은 동 메달을 받았으며 모두 5 개의 세계 기록 중에서 3 개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또 그처럼 우리에게 환호를 보내고 부러워한 것은 바로 우리 조선 청년들이 지난날 미국놈을 때려부신 영웅적 청년들이며 그 기세로 오늘은 천리마의 속도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자기들의 행복을 창조하고 있는 그런 슬기롭고 용감한 청년들이기에 그처럼 훌륭한 재능과 기술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처럼 우리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은 바로 우리 조선 청년들처럼 자기들도 미제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과 싸워 이기고 나라의 자유와 행복을 창조하겠다는 결심이며 맹세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그들 자신이 조선 사람들이 조선 로동당과 같은 위대한 당과 수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처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힘을 가질 수 있을가요?

이 번의 가네포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전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이 더운 기후 조건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가네포에 참가한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모두 오랜 국제 경기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강적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그 어떠한 모진 더위도 그 어떠한 강적과도 굴함 없이 용감히 싸워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가요.

그것은 무엇보다 오늘처럼 우리를 키워 준 당과 수령의 크나큰 배려와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과 수상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체육을 국제적 수준에 이끌어 올리기에 힘쓰며 훈련에서 땀을 더 많이 흘리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수상님께서는 우리들이 쟈카르타로 떠나기 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들의 생활과 건강에까지 념려 해 주시면서 몸 조심하고 꼭 승리하고 돌아 오라고 간곡한 격려의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상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리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쟈카르타에서 경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기간에도 수상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둔 경기 성과에 대하여 친히 축하의 전보를 보내시여 우리를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선수들은 경기의 출발선에 설 때에도,달리는 순간에도 항상 조국을 생각하고 당과 수령을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선수들은 《당과 수상님께서, 그리고 온 나라가 우리의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위와 싸우며 수 많은 국제 경기에 나가 훌륭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적수와 맞다 들어 싸우며 힘이 기진해 졌을 때도 우리의 선수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목숨 걸고 일제와 싸워 이긴 항일 빨찌산 투사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승리에로 고무한 것은 오직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는 천리마 조선의 아들딸이라는 자랑과 긍지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마다에 로동당 시대의 조선 청년들이라는 자랑과 기쁨이 가슴에서 용솟음칠 때 우리에게 못 해 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새 힘을 막을 자 세상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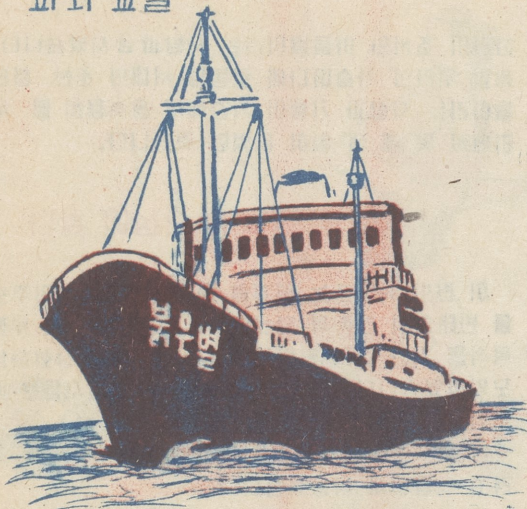
이 번의 가네포는 이처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같은 투쟁 목적을 가진 나라 인민들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는 모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이 모임을 무서워 했습니다.

놈들은 신흥 세력 경기 대회를 하지 못 하게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이 책동은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이 번 신흥 세력 경기 대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51 개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구라파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2,300 명의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자기들의 단결된 힘을 온 세상에 시위 하였습니다.

가네포가 끝난 뒤를 이어 제 1 차 가네포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는 가네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쟈카르타에다 가네포의 상설적인 기구를 두며 가네포 헌장을 채택하고 4 년에 한 번씩 경기 대회를 가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 2 차 가네포는 아랍 련합 공화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로 이 번 쟈카르타에서 진행한 신흥 세력 경기 대회는 그 어떠한 힘과 술책으로도 날로 억세게 자라나는 신흥 세력들의 앞길을 가로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물체를 띄우는 힘

학사 리채복

동무들은 철로 만든 배가 어떻게 되여 물 우에 뜨게 되는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무도 아니고 철로 만든 배가 물에 뜬다는 것은 정말 흥미 있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물체가 왜 물 우에 뜨게 되겠는가를 알아 보기로 합시다.

동무들은 흔히 이런 일들을 당해 보았을 것입니다.

즉 물 속에서 돌을 들어 올릴 때는 그리 무겁지 않던 것이 물 밖에 나오자마자 무거워진다면가 또는 강'가에서 신을 벗고 돌 우로 걸어 다닐 때는 발'바닥이 아픈데 강물 속에서 걸을 때는 발'바닥이 돌에 다아도 그다지 아프지 않는 것 등입니다.

왜 그럴가요? 그것은 돌이나 사람의 몸 무게가 물 속에서는 본래의 무게보다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체가 왜 물 속에서는 본래의 무게보다 가벼워질가요?

동무들은 이런 실험을 하여 보십시오.

바람이 빠진 고무 구명대를 물 속에 넣어 봅시다. 구명대는 곧 물 속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에는 구명대에 공기를 넣어 물 우에 띄워 봅시다.

사람이 올라 타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구명대는 물 우에 잘 뜰 것입니다.

이것은 물에 잠기는 구명대의 체적이 클수록 물이 그것을 우로 떠받드는 힘도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물 속에 잠긴 물체를 물이 떠받드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 부력의 크기는 물 속에 잠긴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을 가득 담은 사발에 사과 한 알을 넣으십시오. 사발에서 흘러 난 물을 다른 그릇에 담아 저울에 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사과의 무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 봅시다.

그러면 동무들은 사과의 무게와 흘러 난 물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물 속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힘(부력)의 크기는 그 물체가 밀어 낸 물의 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체는 물 속에서 물체가 밀어 낸 물의 무게 만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알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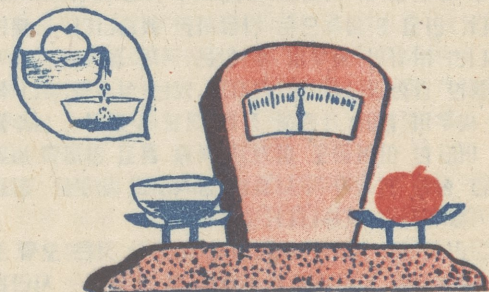
이 원리는 물 뿐만 아니라 공기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명절날마다 하늘 높이 떠올라 가는 고무 풍선을 봅니다. 그 고무 풍선에는 가벼운 수소라는 기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무 풍선은 얼마만한 힘으로 뜨겠습니까? 고무 풍선은 공기 속에서 자기가 밀어 낸 공기의 무게만한 힘(부력)으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풍선의 무게가 부력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선은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물체가 밀어 내는 물이나 기체의 무게가 물체의 무게보다 크면 물체는 뜨고 그렇지 않으면 뜨지 못 하는 것입니다.

례를 들어 봅시다. 체적이 1,000 cm^3 일 때 무게가 787 kg중이 되는 쇠'덩어리를 물에 넣었다고 합시다. 이 때 쇠가 밀어 낸 물의 무게는 1,000CC

즉 1kg중과 같습니다.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쇠는 뜨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에는 그 쇠'덩어리를 얇게 밀어서 변의 길이가 20 cm인 8,000 cm^3나 되는 정방형의 통을 만들어 물'속에 넣었다고 합시다. 이 때 통이 밀어 낸 물의 무게는 8,000g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때 부력의 크기는 쇠의 무게보다 크기 때문에 통은 물에서 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리용하여 철로 만든 배가 물 우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에만 관계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의 비중에도 관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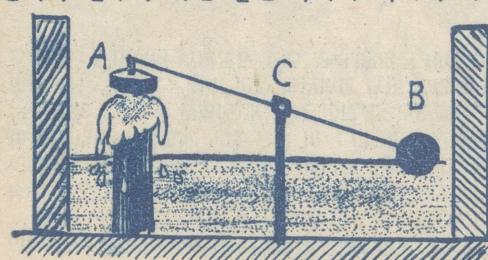
물이 섭씨 4도일 때 1ℓ의 무게는 1kg 중과 같습니다. 모든 물질은 비중이 서로 다르지만 물의 비중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서로 다른 물질 속에서 부력은 어떠한가를 봅시다.

례를 들면 수은 1 ℓ의 무게는 대략 13.6kg중과 같습니다. 수은은 물의 비중보다 13.6 배나 됩니다.

이제 1ℓ의 무게가 거의 3 kg중이나 되는 깨돌을 각각 수은과 물 속에 넣어 봅시다. 수은의 비중이 물의 비중의 13.6 배나 되기 때문에 깨돌은 물보다 13.6 배나 되는 힘으로 더 잘 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체의 비중이 액체의 비중보다 작은 것은 뜨고 반대로 액체의 비중보다 큰 것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가 클수록 커질 뿐만 아니라 액체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력과 비중에 대한 원리를 옳게 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동무들은 이른 봄 협동 농장에 가 보면 농장원들이 소금물에 벼'종자를 담그고 좋은 벼 알를 고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금물의 비중이 순수한 물의 비중보다 크기 때문에 물에서는 뜨지 않는 나쁜 벼알들도 소금물에서는 잘 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력의 작용으로 살아 나가는 동물들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부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레는 물'고기 몸뚱이에 있는 공기 주머니인데 물'고기는 배를 움직이면서 부레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물에서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군사학에서도 이 원리를 리용합니다.

잠수함의 밑바닥에는 넓은 공기 창고가 있는데 만약 적이 나타나면 이 창고의 공기를 내뽑고 대신 물을 넣어 잠수함을 가라앉게 하고 반대로 물을 뽑으면 다시 배는 물 우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원리는 공장에서 자동화 장치를 하는데에도 리용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축 C의 주위를 자유롭게 돌 수 있는 지레'대 AB가 있습니다. 지레의 오른쪽 끝 B에는 가벼운 쇠로 만든 공이 있고 왼쪽 끝 A에는 수도관을 막는 덮개가 있습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흘러 나와 물 높이가 올라 감에 따라 공 B는 부력의 작용으로 우로 뜨게 됩니다. 공이 우로 올라 감에 따라 뚜껑 A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일정한 높이에 달하면 뚜껑 A는 저절로 수도관을 막기 때문에 물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물이 나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력의 원리는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 대쥐 전》은 새로 알려진 우리 나라 고전 소설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흔히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소설을 쓰군 하였기 때문에 이 소설도 작자의 이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씌여진 한문 투로 보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7 세기 후반기에 씌여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소설이 나올 그 당시 봉건 량반 통치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이 다만 한 가지 자기의 권세와 리익에만 눈이 어두워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설을 통하여 작자는 정의감에 불타는 고상한 정신과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피땀을 흘리며 살아 가는 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봉건 량반 통치 계층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그들의 너절한 정치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민들의 재물을 ■앗고 도적질해 먹는 중간 관료배들과 량반 지주들의 간악한 죄상을 숨김 없이 흥미있는 비유적 수법으로 예리하게 폭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은 나라의 우두머리(왕)를 가리킨 것이고 사령은 중간 벼슬 아치들을 말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이 작품의 부정적 주인공인 쥐는 량반 지주들을 말하는 것이며 긍정적 주인공인 다람이는 압박과 착취를 받는 인민들을 형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 글을 읽어 주기를 바랍니다.

① 한 옛날 어느 곳에 소토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다. 그 산 큰 벼랑 바위 구멍에는 쥐들이 무리를 지어 살았다.

여기서 가장 크고 늙은 쥐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성은 서가요, 이름은 대쥐였다. 늙어 등이 굽었으나 수염은 한 뼘이나 되고 꼬리는 서너뼘 되여 제법 그럴듯한 풍채였다.

어느 날, 이 서 대쥐는 자기 무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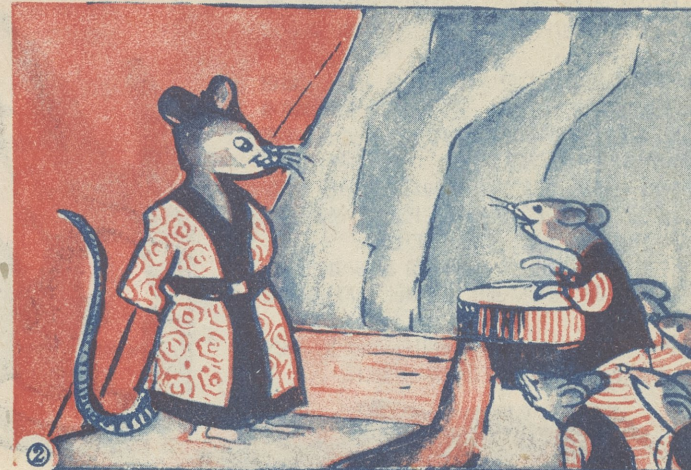
《이 몇년 채 흉년이 들었으나 너희들이 남의 뒤주'속이라도 뚫고 들어 낟알을 날라 오고 산판에서 알밤이나 를밤을 부지런히 얻어 와서 그럭저럭 살아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요즘은 게을러서 고'간이 텅 비게 되였다. 겨울도 닥쳐 왔는데 어쩌자고 이러느냐? 이 늙은 것이 게으른 너희들을 먹여 살리자고 내 배까지 곯려야 하겠느냐? 무슨 변통이 있어야 겠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식량을 구하여 수 많은 우리 족속들을 살려 낼 무슨 묘한 꾀를 가진 자가 없을가?……》

우두머리인 대쥐 말에 모두들 눈을 깜작거리며 땅'바닥만 들여다 보며 누구하나 입을 떼지 않는다.

② 이윽해서 한 젊은 쥐가 두 손을 치여 들며 일어 섰다.

《금년에도 흉년이 들어 논 밭의 곡식은 두 말할 것 없고 풀과 나무도 가뭄이 들어 말라 죽은 판이니 아무리 지혜가 뛰여 났다 하더라도 좋은 계책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꾀가 있사오니 만일 형님께서 상을 주신다면…》

이렇게 말을 꺼내는 자는 서 대쥐의 사촌 아우 서 균이였다. 그 자리의 모든 시선은 서 균에게로 쏠렸다.

서 균은 이런 기회에 많은 상을 받고 또한 자기의 솜씨를 나타내자는 것이다.

③ 대쥐는 《이런 때에 아우의 솜씨를 빌지 않고 누구의 힘을 빌겠는고 상은 달라는 대로 줄터이니 무슨 꾀를 부리겠는지 어서 말을 하게!》하고 입'가에 웃음까지 지었다.

《듣건대 저 남악산 서굴에는 다람이 평 정이라는 자가 무리 수백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금년 같은 세월에도 알밤 50여 섬을 쌓아 두고 겨울 날 차비를 갖추었다 합니다》

서 균은 이렇게 말하고 둘레를 한바퀴 살펴 본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고? 어서 말을 하게!》

《저한테 더도 말고 50 명 군사~용감한 톱'이 20 명과 송곳'이 10 명 그리고 힘센 목도'군 10 명과 수레'군 10 명만을 추려 주신다면 다람이의 식량을 죄다 깜쪽 같이 날라 오겠습니다.》

《아우는 참으로 똑똑하고 분명하이…》 서 대쥐는 당장에서 서 균을 선봉대장으로 임명하고 군사 50 명을 추려 주었다.

④ 선봉 대장이 된 서 균은 군사 50 명을 거느리고 재주를 시험해 보았다.

톱'이와 송곳'이에게 나무로는 박달나무 돌로는 차돌을 베고 뚫으게 해보았고 목도'군과 수레'군에게는 제 몸의 무게보다 열 곱 이상의 물건을 나르게 해 보았다.

시험해 본 성적이 아주 좋아서 모두들 의기 양양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나섰다. 비록 활과 검을 가지지는 못 하였으나 그 기세는 추상(가을 서리)같이 엄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왔다.

서 균은 또 새양쥐 하나를 시켜 남악산 다람이의 석굴에 가서 그곳 다람이의 생활 형편과 알밤 쌓아 둔 데를 정탐해 오도록 하였다.

⑤ 다람이의 석굴로 정탐 나갔던 새양쥐의 말을 들으면 다람이 무리가 오늘 저녁에 큰 잔치를 베풀고 잘 논다는 것이였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서 균은 서둘러 부하 군사들을 소집하였다. 그는 모인 군사들에게 훈시도 주고 주의할 점으로는 특히 뗏고양이와 족제비를 조심하라고 일렀다.

서 균이 대렬을 이끌고 남악산에 가 닿으니 예정한 대로 날이 어두웠다. 그들은 다람이의 석굴 앞 우묵한 곳에 숨어서 밤 깊기를 기다렸다.

때는 초겨울이라 바람은 쌀쌀한데 달'빛이 교교(밝다는 말)하여 도적 무리의 비위에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정탐'군 새양쥐만은 연신 다람이의 석굴 문 틈으로 들고 나면서 서 균에게 정보를 알렸다.

⑥ 이 때, 다람이들은 석굴 안에서 대관절 무엇을 하고 있을가?

새양쥐는 석굴 속 대청(큰집)에서 다람이들이 잔치를 차리고 노는 것을 가만히 엿본다.

다람이들은 자기들의 우두머리인 평 정을 웃자리에 모셔 놓고는 주안'상(술과 안주를 차린 상)을 푸짐히 차려 놓고 둘러 앉아 먼저 평 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금년에도 가물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이 많았지만 우리들은 초여름부터 남녀로소 다 같이 열성을 내여 산판을 헤매며 골짜기를 뒤고 다니면서 식량을 넉넉하게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각자에게 갖옷도 한두 벌씩 차례졌다. 눈앞에 엄동 설한이 닥쳤으나 우리들은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되였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저녁에는 그대들의 수고를 풀기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이니 많이들 들기 바란다. 자, 어서 잔을 들자!》

울깃불깃한 갖옷에 몸을 파묻고 짧막한 손을 발래발래 부비며 말하던 평 정은 먼저 잔을 추켜 올렸다. 그러자 모든 다람이들도 잔을 들기 시작하였다.

⑦ 다람이들은 서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하(우와 아래)가 허물 없이 놀기 시작하였다. 술을 마시면서도 그들은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하자고 맹세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 중 한 늙은 다람이는 집안이 다 모인 자리이니 한 마디 할 말이 있다고 하였다.

《임자네 젊은이들은 아무리 좋은 시절에도 부지런해야 되느니 우리의 할버지들은 늘 말씀하셨네, 남의 것은 손톱끝만한 것도 넘겨다 보지 말고 제 손발을 놀려 벌어 먹으려고 저 소토산에 있는 쥐새끼들은 올 같은 흉년에도 백성들이 피땀 흘려 지어 놓은 곡식을 채 익기 전부터 훔쳐다 먹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본따선 큰 일 나네》

이 말에 모든 다람이들은 앞발-손을 들어 가슴에 얹으며 맹세하였다.

《예, 부지런할 것을 맹세합니다.》

시간이 퍽 지나도록 그들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유쾌하게 놀았다.

그러다 술에 취하고 놀이에도 지쳐서, 다들 서로 베고 이리저리 누운 채 잠이 들어 버렸다.

초'불만 혼자서 다람이들이 먹다 남긴 잔치상을 지키고 서 있었다.

문'가에서 가만히 지켜 보면서 새양쥐는 이러한 형편을 서 균에게 가 죄다 알렸다.

⑧ 새양쥐의 보고를 받은 선봉 대장 서 균은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하였다. 그러더니 두 귀를 발쪽발쪽하면서 생각해보다가

《너 다시 한 번 들어 가 이 번에는 알밤'더미가 어데 쌓였는지 똑똑히 보고 나오너라!》고 명령하였다.

정탐'군 새양쥐는 석굴 안으로 또 들어 가 대청에서 코를 골고 있는 다람이들 틈을 헤집고 안'방으로 기여 갔다.

안'방도 10여 간이나 되리만큼 넓다란데 돌층대 우에 초'불이 저 혼자 굼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새양쥐는 사방을 살필 수 있었다.

방안 구석 구석에는 갖옷들이 걸려 있고 큰 롱짝 속을 뒤져 보니 거기도 갖옷이 챙겨져 있는데 그 밑에는 값진 보물이 들어 있었다.

식량은 어데 있을가? 한참 두리번 거렸다. 아하! 북쪽 바람'벽에 고방으로 드나드는 문이 있다. 문틈으로 삐여져 들어 가 어둠 속을 더듬어 보았다. 아니나 다를가 알밤 50여 섬이 바위로 된 선반 우에 채곡채곡 쌓여 있었다.

⑨ 알밤'더미와 갖옷을 발견한 새양쥐는 즉시 밖으로 되돌아 나와 선봉 대장 서 균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서 균은 기뻐서 군사들에게 습격 명령을 내렸다.

먼저 톱'이와 송곳'이들이 다람이의 석굴 문을 베고 뚫으고 하여 삽시간에 알밤 한 섬쯤 잘 드나들 수 있게 넓혀 놓았다

그 뒤로 목도'군과 수레'군들이 안으로 달려 들어 갔다.

그들은 새양쥐의 길잡이로 안'방에 들어 가 알밤'섬부터 목도도 하고 꼬리에 매여 끌기도 하면서 50여 섬을 몽땅 끌어냈다. 다음은 갖옷이며 롱짝 밑 보물이며 나중에는 토기그릇까지 끌어 갔다.

하나를 보면 열 개를 가져 가고 싶은 것이 도적놈들의 심정인 모양이다.

(다음 호에 계속)

(우리 나라 고전 작가 (1))

최 치원 선생

리 자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옛날의 뛰여난 작가로서 우리는 신라의 최 치원 선생을 맨 처음 꼽습니다. 최 치원 선생은 실로 우리 나라 문학의 기초를 쌓은 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널리 외국에서까지 이름이 난 뛰여난 시인이였습니다.

선생은 륭성하던 신라가 고려로 바뀌여지려던 무렵인 857년 신라의 서울이였던 경주에서 가문이 그리 높지 못 한 가정의 아들로 태여 났답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인민들과 많이 섭쓸리였고 가난하게 사는 인민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선생은 인민들을 깔보고 부려 먹기 좋아하는 귀족적인 것과는 사이가 먼 시와 산문들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그가 낸 책들을 중요한 것만 꼽아 봐도 《계원필경》 20 권, 《중산복궤집》 5 권, 《문집》 30 권…등이 있습니 다. 선생의 호는 고운이였습니다.

(1)

최 치원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한 데다가 공부에 열중하여 열 살이 될 무렵에는 벌써 세상 사람들을 놀래울 만큼 뛰여난 지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문학이건 력사건 눈을 감고도 원전(원책)과 한 자도 틀림 없이 줄줄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잘 가려 낼 줄 알았고 시를 짓는 데서도 그 재주가 뛰여 났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조금도 뽐냄이 없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열 두 살 때에 경주를 떠나 중국(당시 당 나라였음)으로 류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들과 헤여질 때 선생의 아버지는 엄정히 타일렀습니다.

《네가 만일 십 년만에 당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가 시험에 합격되지 못 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자나 깨나 오직 공부에만 열중하여라》

선생은 아버지의 이 간곡한 타이름을 명심하고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 오리라)는 결심을 다지며 사랑하는 조국 땅을 떠났습니다.

당 나라에 간 선생은 장안이란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이 동무들은 놀려 가자고 끌어 냈고 밤이 깊으면 졸음이 자리에 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아버지의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생의 방에선 밤낮 없이 언제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7 년을 공부한 선생은 마침내 열여덟 살 때 당 나라의 국가 시험인 과거(봉건 시대 나라에서 인재를 고르기 위해 치르던 시험 제도)를 보아서 1 등으로 합격했습니다.

《18 세의 신라 청년이 과거에 일등으로 합격을 했다.》는 소문이 온 당 나라에 퍼졌습니다. 당 나라의 작가, 학자들은 몹시 기특히 여기면서 선생을 찾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더러 아주 당 나라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선생은 그런 사람에게는 낯색을 바꾸며

《조국을 바꾸라는 말은 천번 만번 당치 않소. 나는 살아서도 신라 사람이고 죽어서도 신라 사람이요.》하며 당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털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면 높은 벼슬 길도 열리므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 보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심각하게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한 실력이 있는가?》

선생은 지난 날 지은 시들을 모조리 꺼내 보았습니다. 큰 상자에 가득 차 있는 시 작품들을 하나하나 꺼내 본 선생은 큰 주먹을 불끈 쥐더니 쭉쭉 모두 찢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 작품들이 아직 모두 서툰 것이라고 생각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 나라 서울 락양으로 옮겨 가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때는 가을 바람이 일 때이라 락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부슬비마저 축축히 내리는 어느 밤이였습니다.

선생은 이 한 밤을 등'불과 함께 밝히며 조국과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말씀이 쟁쟁히 울려 오는듯 하였고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과 고향 산천이 눈앞에 얼른거렸습니다. 선생은 이날 밤, 《비 오는 가을 밤》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가을 바람 쓸쓸히 불여 예는데
괴로이 시를 읊는 나그네
세상에선 이 나그네를
아는지 모르는지

깊은 밤, 창 밖에선
부슬부슬 내리는 찬 비
등잔과 마주 앉은 나그네 마음은
만리 밖의 조국으로 달리네

락양으로 간 선생은 그 곳에서 2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시를 지었는데 후에 이 시기의 작품 135 수를 시집 3 권에 묶었습니다.

20 세 때에 선주 률수현이란 지방의 현위로 임명되여 약 4 년 동안 관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때 선생은 당 나라의 농민들과 많이 사귀였습니다. 귀족들에게는 비단 옷과 고기가 역겨울 정도로 많았지만 인민들은 누더기 옷, 게죽조차 없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였습니다. 선생은 굶어 죽는 사람도 보았고 한겨울에 입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때마다 선생은 세상이 왜 고루롭지 못한가를 생각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뜨거운 손'길을 내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습니다.

이 시기에 지은 《강남 처녀》는 바로 이런 심정을 읊은 시로서 부자'집 처녀들의 눈꼴 사나운 행동을 폭로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강남 땅 풍속은 좋지 않아
부자'집 처녀들 교만하구나
바느질은 손에 대지도 않고
몸 치장과 거문고 타는 데만 신이 났구나.

…이웃집 가난한 처녀들이
온 종일 삯 비단 짜는 일 비웃으며
—흥, 아무리 비단을 짜도 입어 보지는 못할 걸…

이 시기에 지은 시를 묶은 책이 《중산복궤집》 5 권입니다.

24 세 때 회남 지방 절도사였던 고 병이란 사람에게 가서 학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을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이 불시에 온 중국을 휩쓸게 되자 나라에서는 크게 놀라 폭동을 억누르기에 눈이 벌개 돌아갔습니다. 고 병은 폭동을 억누르는 사령관으로 임명되였고 그의 밑에 있던 선생은 저절로 그의 일을 돕는 종사관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먹고 살'길을 찾아 폭동을

(이 말을 기억합시다)

《동무들! 피를 즐기는 흉악한 미제 원쑤놈들을 똑똑히 보시오.

간악한 원쑤들을 철저히 섬멸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이러한 불행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동무들! 인민의 원쑤를 천백 배로 갚읍시다. 미제 승냥이들에게 죽음을!》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강 호영 영웅은 팔과 다리가 부서지고도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에 굴러 들어 가기 전 전우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일으킨 농민들을 진압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고 동시에 당 나라 세상에 역증이 생겼습니다.

(인민을 잘 살게 하기는 커녕 죽지 못해 일떠선 사람들을 옥에 가두든가, 죽이든가 하는 이 놈의 나라에서 더 오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선생은 29 세가 되는 해에 자나 깨나 그립던 조국 신라로 결연히 돌아왔습니다.

당 나라에 있던 마지막 시기에 지은 시가 무려 1 만 여 수나 됩니다. 이 시들 속에는 신라—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여 마지 않는 애국 심정이 맥맥히 흐르는 시들도 많고 당 나라 시인들을 놀라게 한 주옥 같은 시편들도 많습니다.

이 시기에 지은 시들을 비롯하여 당 나라에 머물러서 지은 시편들을 8 권 속에 모두 묶었습니다.

(2)

신라로 돌아 온 선생은 당시 임금이였던 헌강왕으로부터 나라의 높은 벼슬 자리에서 일할 것을 명령 받고 약 14 년간 관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관리 노릇을 하면서도 인민들을 동정하였고 인민들이 사는 신라 땅을 《꽃동산》으로 곧잘 비유하면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을 담은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호화로운 생활만 일삼는 왕과 귀족들의 썩은 정치로 인민들의 살림은 말이 아니였습니다.

선생이 36~37 세 되던 해에 각지에서는 농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의 이 기세를 리용하여 궁예, 견훤 등 큰 봉건 세력이 일떠섰습니다. 그렇지만 신라 왕과 귀족들은 인민들을 보살피려는 생각은 않고 계속 방탕한 생활만 하였습니다. 애국적인 량심을 지닌 선생은 이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시국을 바로 잡을 데 대한 의견을 왕에게 제출했고 또 귀족들의 옳지 않은 정치와 생활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시들을 썼습니다.

이것이 귀족들의 비위를 거슬려 선생은 수년 후에 지방 관리로 쫓겨 내려 갔습니다.

지방 관리 생활을 하면서 선생은 인민들과 자주 만날 기회를 가졌으므로 훌륭한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이 때 지은 시 《소박한 생각》에서는 관리배들을《여우》《삵》에 비하면서 그 간악하고 교활함을 풍자하였습니다.

선생은 마지막이 가까와 오는 신라를 좋은 세상으로 개변시키지 못할 바에는 관리 노릇을 안 하리라 다짐하고 벼슬에서 뛰쳐나와 여기 저기 떠돌아 다니는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선생은 주로 명승 고적을 찾아 다니였는데 그가 즐겨 찾아 간 곳은 경주의 남산, 강주의 빙산, 협강의 림경대, 웅진의 공주성 등이였습니다. 이 시기에 선생은 조국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끓어 넘치는 사랑의 정을 노래하였습니다.

《림경대》라는 시는 그 중의 하나입니다.

림경대는 지금 경상남도 김해의 황산강에 있는 대의 이름인데 이것은 선생이 몸소 돌을 쌓아 만든 것입니다.

연기 자욱한 메뿌리는 우뚝 솟았고
굽이치는 강물은 쏴—쏴— 흐르는데
푸른 산 봉우리와 마주 앉은 인가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구나

강 우에는 바람 풍긴 돛대가 하나
네가 떠가는 곳, 그 어디메냐
홀연히 나타난 날'새 한 마리
순식간에 멀리 날아 자취를 감추네

아름다운 산과 강, 집과 배, 푸른 삼림과 날'새—이 모두가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선생은 인민들을 사랑하고 동정하며 통치배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렇듯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도 많이 썼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많은 쩨마들을 썼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깨끗하고 숭고한 것이며 애국적인 것들입니다.

선생은 산 속의 생활을 계속하다가 70 세 전후하여 가야산 해인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나라 고대 문학은 최 치원 선생이 넓게 열어 준 길을 따라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설날 아침에
왕— 우리 집 옆을
기차가 지납니다.
천리마로 천리마로

가슴엔 민청 휘장
머리엔 2 중 천리마 휘장 달고
칙칙푹푹…칙칙푹푹
천리마로 달립니다.

나는요 뛰여 나와
새해 인사 드렸어요
《기관사 아저씨
새해를 축하합니다.!》

아저씨는 말 없이
웃으며 달리지만
우리 행복 싣고 달릴
그 웃음을 알아요

쓰기 좋고 보기 좋은
일용품을
가득가득 싣고 달릴
새해라면서

아저씨는 기적 소리
높이 울려 당부해요
최우등생 되여라고

그러면 나는나는 다짐하지요
이해에도 반드시 공부 잘 해서
모범 분단의 최우등생 영예를
더욱 빛낼테라고.

평남도 문덕군 룡담 중학교
중등반 2 학년
렴 선숙

루승근 외우기

우리들이 일상 계산에서 잘 나오는 루승근을 다음과 같이 쉬운 말로 외울 수 있습니다.

$\sqrt{2} = 1.414$
《하네 하네》

$\sqrt{3} = 1.7320$
《한 번 칠세 이 공을》

$\pi = 3.1415$
《3.1》운동과 《4》월 《15》일

알아 두기 수첩

(빨리 푸는 방법)

2원 1차 련립 방정식

2 원 1 차 련립 방정식의 근을 다음과 같이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AX + By = C$$
$$A'X + B'y = C'$$
$$X = \frac{B'C - BC'}{AB' - A'B}$$
$$y = \frac{AC' - A'C}{AB' - A'B}$$

작문

1964 새해를 맞으며

나는 새해를 새로운 희망과 굳은 결의로 맞이했습니다.

7개년 계획의 네 번째 해인 1964년, 이해는 또 얼마나 보람찬 해입니까!

당은 우리 인민들의 살림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인민들이 쓰고 사는 데 필요한 갖가지 물건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 낼 보람찬 과업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에는 우리들이 쓸 학용품들도 더 좋은 것이 더 많이 만들어질테지요. 얼마나 행복한 우리들입니까!

나는 지나 온 한 해를 돌이켜 보며 새해의 결의를 다집니다.

금년에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소년단 생활을 잘 해서 모범 소년단원이 꼭 되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고치렵니다. 이전에는 교과서에만 매달려 공부했지요. 이제부터는 실험과 실습을 더 잘 하여 배운 지식을 쓸모있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행군에 더 잘 참가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흥미 있는 문학 서적만 보았는데 올해에는 많은 과학 서적들도 읽어 배운 지식을 더 풍부히 해 나갈 결심입니다.

나는 올해에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렵니다. 그리하여 나와 한 분단인 김 익조, 김 정희 동무를 힘껏 도와서 꼭 나와 같이 최우등생으로 이끌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부지런한 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도 잘 돕고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봄에 동리 아이들과 힘을 합쳐서 마을 한 복판에 아동 공원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도 잘 듣고 례절을 잘 지키여 칭찬 받는 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위 1급군에서 사는 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겠습니다.

평남 문덕군 립석 중학교 (중등반) 2 학년

강 운세

동시

방아

우리 마을 새집 짓던 날
땅에서 파낸
차돌 방아확
쿵쿵 이야기 전해 줘요.

1 년내 농사 지어
방아 찧어도
배나무집 솥에는
맹물만 끓었대요.

철부진 등에 업혀
울었다지요.
날마다 날마다 떡방아는 찧어도
떡은 어째 한 번도 안 해 주냐고…

찧던방아 한숨 방아
주먹 불끈 쥐고서
어머니는 날마다 쏘아 봤대요
지주네집 곡간을 쏘아 봤대요

오늘도 쿵쿵
그 옛날 방아 소리
우리들 가슴에
크게크게 울려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지난날을 잊지 말라
남쪽 땅엔 아직도
이런 방아 많다고…

강원도 창도군 장현 중학교

중등반 3 학년 리 승기

동시

우리들도 새해엔

우리 학교 축산 연구 소조원들
협동 농장 찾아 가요.
새 품종 닭과 오리 털토끼 종자 가지고.

관리 위원장 아저씬
하나씩 하나씩 손'길을 잡으며
벙글벙글 웃으셔요.
앞날의 축산 기사들 장하다구요.

우리 축산 연구 소조원들의 자랑을
아저씨는 알고 계셔요.
앞날의 축산 기사 우리들을 도와
언제나 축사에 찾아 오군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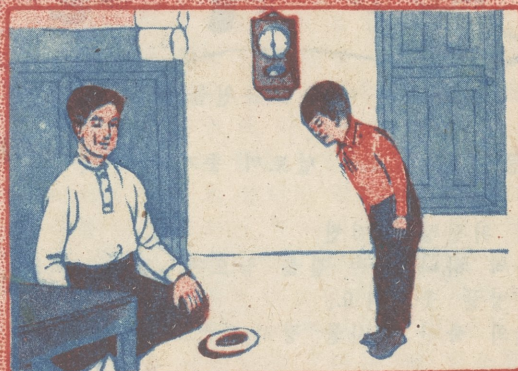
동물 시간 배운 지식
실습으로 익혀 가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초식 동물 기른 보람이여.

당의 붉은 편지 받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따라
앞날의 축산 기사 우리들도 새해엔
더 많은 새 품종 길러 낼래요.

황해 남도 은천군 신창 중학교 2 학년 박 찬영

겨울 방학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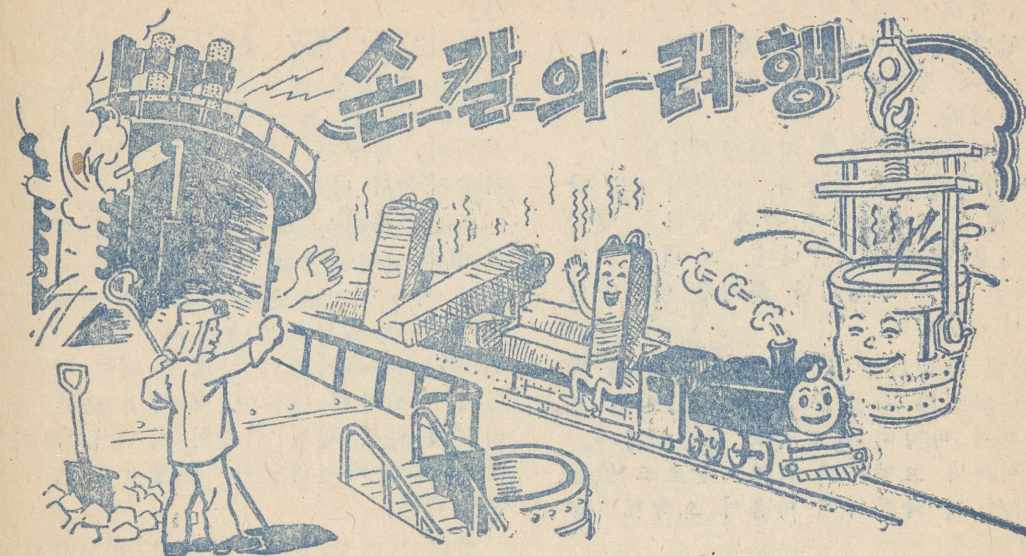
왜 겨울에는 검은 옷을 입을가요

동무들은 해'빛이 일곱 가지 색으로 되여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 가지 색들은 빛이 쪼이는 물체에 따라 반사되고 흡수되는 성질이 다릅니다. 례를 들면 붉은 색을 가진 물체에 해'빛이 쬐이면 이 때는 붉은 색만이 반사되고 나머지 빛은 모두 그 물체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러나 흰 색을 가진 물체일 때는 일곱 가지 색이 모두 반사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흰 옷을 입는 것이 덥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검은 색을 가진 물체는 일곱 가지 색을 모두 흡수해 버리고 말기 때문에 겨울에 검은 옷을 입으면 그 만큼 우리의 몸을 덥게 해주는 것입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하고 인사한다. (다른 방에서 자고 났을 경우)

•이른 아침 조기 체조 때 마을 로인들을 만나면 《할아버지(할머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으로 가실 때.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다녀 오십시오》하고 인사한다.

차 용 구

그림 김·성엽

(전 호에서 계속)

전기로에서 나온 묵직이네는 아름이 버그는 강철 기둥이 되고 다시 기중기 그네를 타고 꼬마 기차에 실렸습니다.

다음 공장에 간 묵직이네는 가열로에서 시뻘겋게 단 채 이동 창치에 실려 집체 같은 압연 롤에 물리였습니다.

압연 롤에서 아래우로 재주를 넘면 묵직이는 굉장하게 늘어 나서 여러 토막으로 끊긴 다음 또 다른 공장엘 갔습니다. 아까보다 좀 작은 압연 롤에서 또 몇 번 재주넘이를 하자 큰 길 너비만한 철판이 되였습니다.

전날 이 공장에서는 두꺼운 철판이나 육중한 강철 기둥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에는 박판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칼만큼 가는 쇠줄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쇠줄도 많이 뽑구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일상 손 가까이 두고 쓰는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기계를 많이 만들고 큰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그 큰 공장과 큰 기계들에서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살 일용품을 만들고 또 그런 것을 만드는 꼬마 선반, 꼬마 볼반 같은 기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묵직이는 이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뜨락또르, 자동차, 《장백호》 굴착기도 좋지만 알뜰한 일용품이 더 좋아 뵈서 넝큼넝큼 뛰여 일용품들을 만드는 직장에로 갔습니다.

묵직이네 철판은 거기서 무엇이 될가 하고 여기 저기 돌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묵직이는 거기서 자수도 놓고 앞뒤로 마음 대로 오가고 두텁고 얇은 천도 가리지 않고 곱게 누벼 내는 재봉기들을 구경하고 아무리 더러워진 옷도 제깍 빨아 내는 세탁기도 봤습니다. 그리고 가만 앉아 있어도 요술 가마처럼 밥이 저절로 되는 전기 가마들, 석유 곤로들, 무더운 여름에도 생선을 두고 두고 먹게 하는 랭동기도 보고 유모차량, 삼륜차량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묵직이에게 제일 마음에 든것은 탁상 시계였습니다. 묵직이는 저도 재깍재깍 움직이면서 찌릉찌르릉 시간을 알려 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묵직이네 철판은 시계 공정에로 막 달려 갔습니다.

《야, 얼마나 훌륭한 철판인가!》

묵직이네를 본 로동자 아저씨들은 막 기뻐하면서 프레스에다 갖다 물리고 잘칵잘칵 판을 찍어 나갔습니다. 그 때마다 프레스에선 시계 뚜껑이랑 틀이랑 축이랑이 찍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묵직이네는 철판의 맨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 꽁다리 쇠쪼각이 되여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니 모양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쇠쪼각이 된 묵직이네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도 기대들에선 재칵재칵하면서 태엽도 튀여 나오고 종'대도 튀여 나오고 요술 주머니에서처럼 로동자가 부르는 것은 무엇이나 다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그것을 헤—하고 쳐다보는 묵직이네 눈에는 눈물이 핑그르 돌았습니다.

뚜—하고 고동이 울렸습니다.

우렁찬 행진곡이 울리면서 오늘 하루에 만든 제품들이 척척 행진해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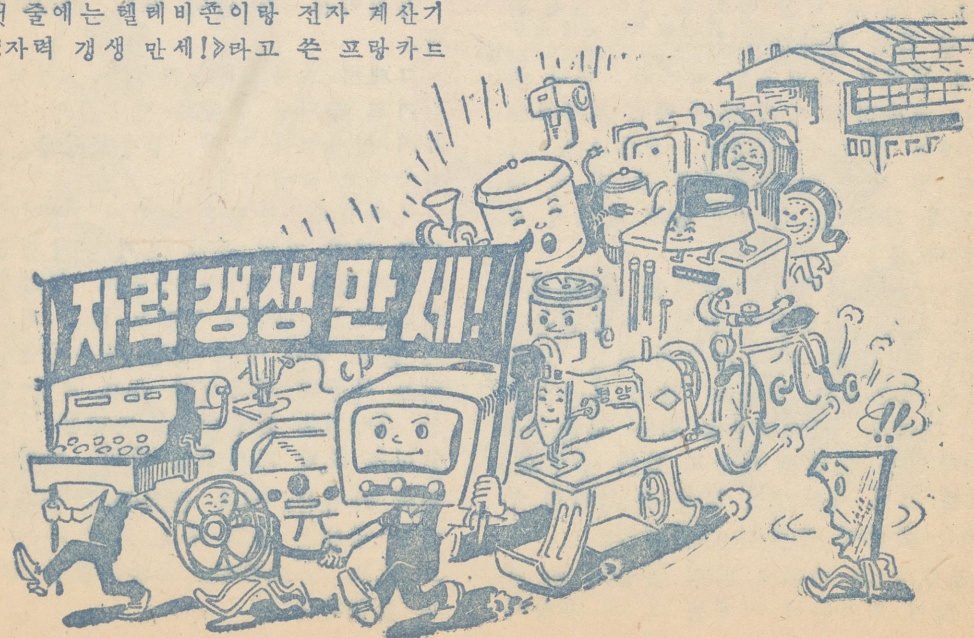
맨 첫 줄에는 텔레비죤이랑 전자 계산기랑이 《자력 갱생 만세!》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나오고 라지오와 꼬마 축음기가 삼 형제처럼 나란이 손목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풍년》, 《쌍마》, 《평양》의 삼 동세 재봉기가 어깨 겯고 나오고 그 뒤에는 또 부엌 살림'군들인 자동세탁기, 랭동거, 전기 가마, 석유 곤로, 과즙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그 뒤에는 어머니, 누나들이 좋아 할 갖가지 물건들이 나왔는데 제창 물을 뿜으며 자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다리미, 전기 인두, 스위치만 누르면 저 혼자 청소해 주는 흡진기들이 나오고 전기 리발기, 전기 면도칼이 나오고 네 바퀴 달린 유모차, 세 바퀴 달린 어린이 자전거, 두 바퀴 달린 꼬마 자전거들이 살랑살랑 굴러 나왔습니다.

각가지 모양의 크고 작은 시계들이 댕동당! 코'노래 부르며 나오고 그 뒤에는 탁상 불반, 탁상 선반, 탁상 후라이스반이 씩씩한 행진곡을 부르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탁상 선풍기들이 선들선들 바람을 일으키며 나오구요.

《여보슈들, 좀 빨랑빨랑 나갑시다. 어서 가서 보람 있게 일들을 해야 할 게 아니요.》

그것은 10년이나 땅 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파철의 조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멋진 《평양》호 재봉기가 되여 다르르다르르 발장단을 치며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두들을 눈물 속에 바래고 난 묵직이는 파철'더미 우에서 엉엉 소리쳐 울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

묵직이가 눈을 떴을 때는 자기가 탈탈 굴러 가는 따찌까를 타고 있었습니다.

《옳구나, 인젠 날 내버리려는구나! 영 그러면 10 년이고 100 년이고 땅 속에서 그냥 녹 쓸어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간 묵직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 버리지 말아요! 나도 재봉기가 되고 싶어요. 랭동기도 될래요. 힘껏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따찌까는 대답도 없이 어떤 환한 직장에 들어 갔습니다. 거기는 이 공장의 생활 필수품 직장인데 이 직장에서는 쪼각쇠들을 가지고 별의별 철제 일용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묵직이는 꽃수건을 쓴 처녀 로동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사이도 없었습니다. 깜찍하게 생긴 꼬마 압연 롤이 볼품 없는 묵직이네 쪼각쇠를 넝큼 잡아 물고 더 얇게 압연했기 때문입니다.

묵직이네가 압연기 롤에서 나와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웬 사람이 넓적해진 묵직이네 철판을 집어 들었습니다.

《음, 이거면 됐어, 훌륭한 손칼'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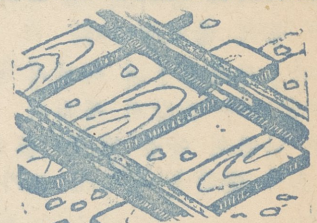
이래서 묵직이는 손칼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만저만한 손칼이 아닙니다.

날이 두 개나 있는데 하나는 과일 깎고 다른 하나는 연필 깎는 날이지요. 그리고 병마개 뽑이와 나사틀개가 달리고 통조림통 떼개와 줄칼, 송곳, 손톱깎개가 달린 아주 멋진 손칼입니다. 게다가 또 학생들이 쓰기 좋게 길이를 표시하는 눈'금까지 붙은 거랍니다.

한 번은 이 생활 필수품 직장에 소년단원들이 견학을 나왔는데 그 칼이 어찌나 마음에 들었던지 막 손에 쥐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 때부터 묵직이는 제가 시계랑, 재봉기랑, 텔레비죤이랑이 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한탄하진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에서 만드는 꼬마 가위랑 압침이랑 종이 집게랑 연필 마개랑 펜촉이랑 콤파스랑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엽만 감으면 얼마든지 굴러 가는 장난'감 기차, 자동차랑도 부러워하지 않았고 문돌쩌귀랑 접철이랑, 서랍 손잡이랑, 옷걸개랑 크고 작은 금고랑, 별의별 자물'쇠랑, 손톱과 못뽑이와 손마치랑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쇠도 늘었다 줄었다 한다.

동무들은 보이라에서 증기를 보내는 관을 보면 곳곳에 희랍 문'자 《오메가》(Ω)처럼 생긴 보상기를 달아 놓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보상기를 달았을가요?

물체는 열을 받으면 본래의 길이보다 늘어 나고 차지면 줄어 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겨울에 뜨거운 증기를 보낼 때마다 관은 늘어 나고 증기를 보내지 않을 때는 차져 줄어 듭니다.

만약 《용수철》 작용을 하는 보상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관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여름철에 평양—원산 간의 철도 레루이 태양의 열에 의하여 119 m나 늘어 난다고 합니다. (레루의 룸새를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 내가 이 세상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학생들의 둘도 없는 벗이야!》

이것은 이 때부터 묵직이—손칼이 늘 간직하고 있은 자부심입니다.

손칼이 된 묵직이는 어서어서 아이들 손에 들어 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동자들이 말하길 손칼들을 모두 창고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란 손칼이 더 자세히 귀를 강그었습니다.

《글쎄, 훌륭한 칼이지만 이대로야 어떻게 내놓겠소. 아직은 완제품이 아니요. 4기 7차 전원 회의도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요구했는데요. 이 훌륭한 칼에 굉장한 옷을 입힙시다》

《예, 그럽시다. 그런데 옷감으로 니켈을 쓸가요, 크롬을 쓸가요?》

이 말에 손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가만 있자. 거 봐보 같은 반들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닐테지, 아마 같은. 이름도 있는 모양이지!)

그런데 아까 그 로동자가 어디선지 헐떡거리면서 오더니 웨쳤습니다.

《아 직장장 동지! 니켈이 도착했수다!》

《아! 거 참 잘 됐소, 빨리 옷을 입힙시다!》

이래서 손칼들은 어둑시근한 창고에 갈 대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웬 통 속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에 자르르 전기가 통하고 그 때마다 하얀 것이 와서 몸에 붙었습니다.

《야! 묵직아! 너 여기서 만나는구나!》

누군가가 반갑게 웨쳐서 쳐다보니 그것은 니켈의 아들 반들이였습니다. 반들일 보자 손칼은 별안간 코가 우뚝해졌습니다.

《체, 너 갈 데가 없는 게로구나. 아무데나 헤매 다니는 걸 보니?…》

《원 애두, 난 너희들이 옷감이 없다고 해서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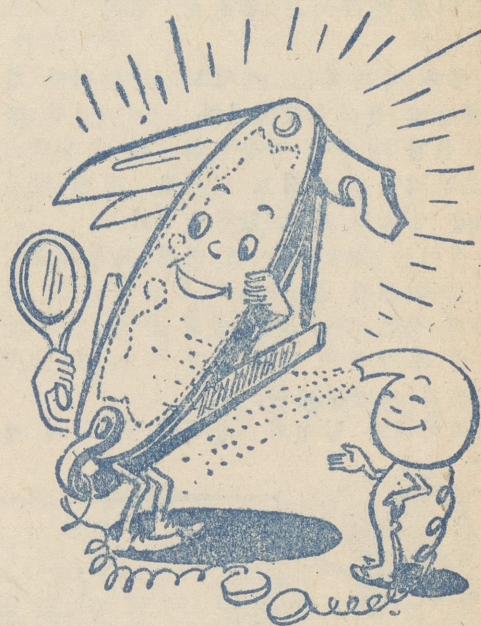
《아하 알았어. 넌 심부름'군인 모양이구나, 하긴 그것도 너희에겐 과만하지, 어험!》

손칼이 멋도 모르고 이렇게 기세를 돋구는 바람에 반들이는 어이 없어 씩 웃고 말았습니다.

《얘, 넌 그저 그 모양이구나. 우린 지각의 0.008 밖에 안 되지만 너희네 친척들이 니켈강, 니켈크롬강, 녹 안 쓰는 좋은 쇠로 되는 데 없어선 안 될 합금 자료야. 그리고 너희들이 입을 옷감—도금 자료이기도 하지.》

《뭐 뭐?! 네가 내 옷감이 된다구.》

《그래 자 내가 네게 옷을 입혀 주마! 억년 녹이란 놈이 슬지 못 하게 말이다.》

손칼은 그만 말문이 칵 막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니켈의 아들은 손칼에게 하얗고 빤들빤들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니켈 도금을 해 가지고 기름 종이 내의를 입고 은종이 덧

옷을 입고 아롱다롱한 곽에 들어 상점에 간 것은 그 다음날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상점 진렬대에 나선 손칼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얘, 손칼아! 묵직아, 너 참 훌륭하구나, 딱 번들번들 하구나!》 손칼은 두리번거리면서 찾아 가 보았더니 그것은 글쎄 상점 담'벽이였습니다.

《아니 네가 날 어떻게 안다구 그러니?》 그러자 담'벽은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허, 모를테지, 내가 바로 그 때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걸어 간 석회석이야. 여기 너한테 수모 받던 차돌이도 있고 검돌이도 있어, 우린 너희와 갈라진 다음엔 이렇게 건설 부재가 되여 큰 상점을 짓고 너희 오길 기다리던 참이야!》

그 때에 가서야 묵직이는 제가 땅 속에서 나와 훌륭한 손칼이 되여 이 상점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벗들의 도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묵직이-손칼은 남보다 좀 나을듯 말듯한 재간을 가지고 뽐내던 것이 막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 쓸 데 없는 자랑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하자!》 손칼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물건들이 연송 팔려 나갔습니다. 맨 웃단에 선 텔레비존이 말합니다.

《오늘은 벌써 삼백 서른 네 개째야.》

그러자 라지오가 뚜 뚜 땡! 하고 나서

《우린 벌써 660 개째야. 아니, 아니 또 하나가 팔리니까 661 개째구나!》

그러자 상점 안에 번쩍번쩍하며 산'더미처럼 쌓인 다리미도, 유모차도, 랭동기도, 세탁기도, 전기 가마도, 놉 그릇들도, 석유 곤로도 저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재봉기네 3 동세가 달달달 노래 부르면서 777 개가 팔리는 중이라니까 벽시계랑 네모난 시계, 보름'달 같이 둥근 시계,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안에 박힌 시계, 반달 같은 옥석들을 가진 시계, 크고 작은 팔뚝 시계— 시계네 대가족이 재봉기보다 열 배나 더 많은 7천777 개가 팔린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는데 비로드, 양단, 날염 직물, 줄 면직, 무광택 인견 등 1천 종이나 되는 아롱다롱한 천들, 무지개 같은 색동옷들, 600~700 식구가 되는 편직물들, 화장품의 200 형제들, 수지로 만든 물건들, 비날론 옷가지들, 비닐로 만든 일용품들, 명롱한 유지 제품들이 모두 제마끔 한 마디씩 하고 책상이랑 걸'상이랑 침대랑 찬'장이랑이 뒤질세라 뽐내고 식료 매대에서도 수백 가지 통조림들, 병에 든 것들 할 것 없이 떠들고 나섰습니다. 아유 어찌나 많은지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와 붉은 편지를 받고 온 나라 근로자들이 만들어 낸 3만 종도 넘는 일용품들이 저마다 한 마디는 다 했으니까요!

그럴 때 밖에서 소년단 행진곡이 들려 더니 빨간 리봉에 빨간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 우르르 몰려 왔습니다. 아이들은 500여 종이나 되는 비닐 가방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도 고르고 새 품종인 일기책이랑 공책이랑도 사고 삼색 연필도 만년필도 샀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손칼을 발견했지요.

《애들아, 손칼이 나왔구나, 우리가 공장에서 본 그 손칼이야!》

《그래 정말!》

《야, 정말이구나!》

《판매원 누나! 손칼 하나 줘요.》, 《나도 줘요, 나도!》

그래서 손칼은 대번에 서른 개도 더 팔렸습니다. 그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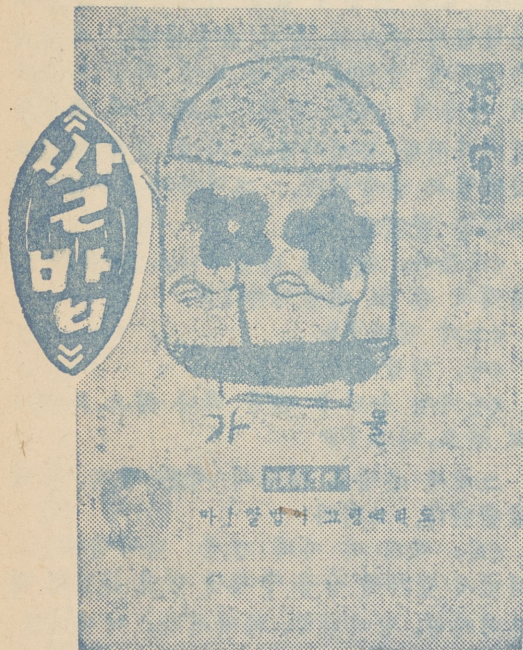
《하, 이게 다 자력 갱생 덕이웨다!》 하면서 갖가지 상품 구경에 넋을 잃었던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누나랑, 언니랑, 오빠랑, 동생이랑이 또 저마다 샀습니다. 물론 여기엔 영남이 몫도 있였지요. 손칼은 저와 같은 철제 일용품에게 손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슬라크 담'벽에도 인사했구요. 또 여기 와서 낯 익힌 직물 아주머니들이나 화장품 아씨들, 비닐이나 수지 제품 동무들, 식료품 아주머니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합시다!》

* *

이것이 손칼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듣자니까 영남이도 지금은 손칼의 려행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집 부엌과 방안에, 책상 우에, 또 제 가방 안에 들어 온 새라 새로운 물건들을 가져다 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 대해서도 썩 많은 것을 안다나봐요!

(끝)

안전일

소년단원 동무들!

이 그림을 찬찬히 보세요.

이 그림은 남조선의 한 소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의 명산의 하나인 지리산 (경상 남도) 기슭에 사는 금년 열 살에 나는 며중석 동무는 작문 시간에 선생님이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는 글을 지을 대신 난 데 없이 꽃무늬가 새겨진 밥그릇에다 쌀밥이 수북히 담겨진 이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며중석 동무는 어찌하여 작문 대신 쌀밥이 담겨진 그림을 그렸을가요?…

그가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에 대해서 한 폭의 쌀밥 그릇을 그린 것은 그의 다음과 같은 눈물겨운 사연이 있였기 때문입니다.

× ×

중석이는 경상 남도 함양군 마천면 의란 국민 학교 3 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입니다.

중석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을에서도 가장 부지런히 일하는 농민입니다.

밭갈이하는 봄철부터 벼가을하는 가을철까지 부모들은 등이 휘도록 농사'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중석이네 살림은 좀처럼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른 봄부터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에우던 중석이네 식구들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쌀밥이나 한 번 실컷 먹어 보았으면…》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온 여름 부지런히 일하였던 것입니다.

중석이는 비록 나어린 몸이였으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선 집안 농사'일을 도와 주어야 했습니다.

놀고 먹는 장 지주의 아들 금산이와 황 지주 손자인 순철이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에도 중석이는 학교 대신 밭에 나가 김을 매야 했고 산에 가서 풀뿌리를 캐야 했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였습니다. 낟알이 없어 온 여름 풀뿌리와 산의 열매로 끼니를 이어 온 그는 드디여 먹지 못 해 부황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두 달 동안이나 줄곧 앓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탓으로 해서 중석이는 병원에도 갈 수 없었고 약 한 첩 쓰지도 못 했답니다.

중석이가 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이에 어느덧 여름이 지나 갔습니다.

드디여 중석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철이 다가 왔습니다. 그의 병도 어느 정도 회복되여 학교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석이가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날이였습니다.

그가 공부하는 학급 학생 60여 명이 앉아 있어야 할 교실에는 뜻 밖에도 열 대여섯 명이 되나마나 했습니다.

중석이와 가장 친근히 지내던 앞마을의 영식이도, 밤나무'골 철화도, 병남이도 모두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석이가 부자'집 애들인 금산이와 순철에게 빈 자리가 많은 리유에 대해서 물었으나 《이 자식, 내 알 게 뭐냐.》 하고 대꾸했습니다.

《웬 일일가? 다른 학교에 전학들 갔을가…》

중석이는 이런 생각에 잠겼으나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산수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는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왜 아이들이 다 없습니까. 전학 갔습니까?》

중석이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던 선생님은 큰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석이, 오늘 아침에 무얼 먹고 왔어…》

《강냉이 죽을 먹고 왔습니다…》

《점심은?》

《점심은 싸 가지고 오지 못 했습니다.》

《중석이는 아직 마을 사정을 잘 모르고 있구나… 너희 동무들은 지금 모두 굶고 있단다. 기운이 있어야 학교에 나올 게 아니냐…》

어느덧 한숨 짓던 선생님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중석이네 집에서는 온 식구가 탈곡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피땀을 흘려 지은 곡식이지만 장 지주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버지는 탈곡 마당에서 빈 비'자루만 쥐고 돌아 서고 말았습니다.

중석이가 그처럼 고대하던 쌀밥 먹는 것은 이처럼 장 지주와 군사 깡패에 의해서 산산이 마사졌습니다.

그는 장 지주놈이 끝 없이 미워졌습니다.

어느 날 작문 시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가을》이란 두 글'자를 크게 써 놓고 이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작문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중석이는 벼가을하는 가을철에도 쌀밥을 먹을 수 없는 가을을 곰돌히 생각하던 끝에 드디여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작문 용지에다 커다랗게 사발을 그려 놓고 거기에 꽃무늬를 새겼으며 그 우에는 쌀밥이 수북히 담겨진 탐스러운 한 폭의 밥사발을 그렸던 것입니다.

× ×

남녘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가을철에도 쌀밥 구경을 못 하는 것은 비단 중석 학생 한 사람에게 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108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린 창자를 부여 잡고 학교에 제대로 등교하지 못 하고 있으며 오늘도 그들은 배 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북반부 어린이들은 당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이 행복하면 할수록 미국놈 구두'발에 채우며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남녘 땅 어린이들을 한 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기 위하여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더욱더 높은 성과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원쑤에게 죽음을!

(월남) 려 명 과

해질 무렵, 두 소년이 들판에서 소를 끌고 마을로 돌아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푸우라는 소년과 쓔우라는 소년이였습니다. 무심코 걸어 오던 그들은 먼발치로 아래우 꺼먼 옷에 군대 모자를 쓴 키가 껑충한 경관 한 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놈은 지금 마을 채마 밭머리를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 가고 있는 참이였습니다.

쓔우는 팔'굽으로 푸우의 옆구리를 질렀습니다.

《저것 봐! 괴뢰 경찰 대장놈이 우리 마을로 들어 간다. 아침에 아상 아주머니를 잡아 가더니 무슨 짓을 하려구 또 올가?》

푸우는 소스라치듯 깜짝 놀랐습니다.

《야단 났다. 아까 너의 아저씨가 집에 돌아 오던데…》 하고 대답하는 푸우는 저도 모르게 낯색이 새'하얗게 질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던 말을 다시 이였습니다.

《그저께 내가 들었는데 그 놈이 너의 아저씨를 잡으면 막 생 채로 묻어 버리겠다고 을러 대질 않겠니.》

두 동무는 그만 안타깝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의 일이였습니다. 류칭 아주머니는 집에서 깃이 없는 흰옷을 짓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상 아주머니는 며칠째 앓고 있는 네 살짜리 츄우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류칭 아주머니와 아상 아주머니의 남편은 몇 해 전에 다 북부 월남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주머니 둘은 한 집에서 서로 도와 가며 함께 살아 왔습니다. 류칭 아주머니는 삯바느질을 하여 살아 가고 아상 아주머니는 산파 노릇을 합니다. 아상 아주머니는 집에 붙어 있는 일이 드물고 늘 바깥으로 나가 비'바람의 모진 밤에도 초롱'불을 들고 적들의 보초막을 지나 다니면서 애기를 받아 내는 산파 노릇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산파 아주머니》라고 부르면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옆의 마을에 가서 애기를 받아 내 주다가 츄우가 앓기 때문에 밤'길이 위험하지만은 그 마을에서 묵지 않고 밤으로 돌아 왔던 것입니다.

츄우는 마구 어머니한테 엉석을 부리면서 약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츄우는 착한 애야, 약을 먹구 빨리 나야 이담에 아버지가 돌아 오셔도 너를 착한 애라고 칭찬하시지.》 하고 아상 아주머니는 아이를 달래였습니다.

츄우는 아버지가 늘 그리웠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일은 없었으나 류칭 아주머니가 그더러 꼭 아버지 같이 생겼다고 늘 칭찬할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며 깨득깨득 웃군 하였습니다.

츄우는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약을 곧잘 넘겼습니다.

츄우가 이렇게 약을 먹고 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분주히 달려 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서 웨치듯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아이구, 이를 어쩌나, 읍에서 경찰놈들이 또 사람을 잡으려 왔어요. 빨리 도망쳐요…》

아상 아주머니와 류칭 아주머니는 뜻하지 않은 일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류칭 아주머니가 얼른 뒤'문으로 나가 보니 네 놈의 경찰이 앞문으로 들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상 아주머니가 어린 츄우를 안으려는데 경찰 대장놈이 벌써 불쑥 나타나 소래기를 지르는 것이였습니다.

《저 년을 묶어라!》

경찰 한 놈이 츄우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내였습니다. 어린 츄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막 애타게 우는 것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함 소리와 울음 소리를 듣고 다들 모여 들었습니다.

아상 아주머니는 두 놈의 경찰에게 두 팔을 묶이웠지만 츄우의 목을 틀어 잡고 있는 경찰놈에게로 달려 들었습니다.

《이 망할 놈아, 어린것을 잘못 다쳤단 봐라!》

경찰 대장놈은 방안에 있는 상자며 롱짝이며를 온통 뒤져 보았으나 아무 것도 나타나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놈은

《읍으로 끌구 가자!》 하고 부하들에게 또 명령하였습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가잔 말이요?》

아상 아주머니가 대들자 경찰놈과 같이 온 앞잡이 한 놈이 아주머니에게

《아직두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느냐?》고 눈깔을 부라리였습니다.

《산파 노릇을 해요. 녀성들의 애기를 받아 내는 일이 그래 나라에 죄 짓는 일이요?》

《뭐라구! 산파라는 이름을 걸구 너는 사방 싸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선전을 하지 엉!》

여기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항의하여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찰 대장놈은 제법 어깨를 으쓱거리며 소래기를 지르는 것이였습니다.

《너의 남편은 북부 월남으로 가서 빨갱이 노릇을 한다. 너두 빨갱이야!》

아상 아주머니가 대들어 리치를 따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놈은 아상 아주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미친듯이 달려 들어 마구 그의 뺨을 후려 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상 아주머니의 얼굴은 금시 시뻘겋게 멍이 들고 빨간 코피가 흘러 내렸습니다. 그 악착한 경찰 대장놈은 아상 아주머니를 마구 때려 끝내 까무러쳐 넘어지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수십 개의 분노에 찬 눈총이 그 악착한 짐승들을 쏘아 보고 있었습니다. 세 자루의 기관단총이 쏘아 보는 군중들에게 돌려지고 있었습니다. 앞잡이 한 놈이 랭수를 떠다 아상 아주머니의 얼굴에 들부었습니다. 그러자 아상 아주머니는 차츰 깨여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 대장놈이 턱으로 부하들에게 무슨 지시를 하자 여러 놈들이 아상 아주머니를 밖으로 끌어 내갔습니다. 이 때에 어린 츄우는 또 크게 소리를 내여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울음 소리는 칼날처럼 어머니의 가슴을 오려 내였습니다.

거기 모였던 여러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는데 그 중 웬 할머니 한 분은 츄우를 껴안으며 입속으로

《나라에서 백성들을 이렇게두 못 살게 구니 이걸 참을 수 있나… 원 세상두!》

그 때 푸우와 쓔우도 사람들 틈에 끼여서 경찰 대장놈이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분

하고 미운 생각이 가슴을 조이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겁디 무거운 물건이 가슴을 지지 누르는듯 속이 언짢았고 코허리가 시큰거렸습니다. 하마트면 눈물이 막 쏟아질 번 하였지요.

푸우는 아상 아주머니를 잡아 가는 놈들을 바라 보다가

(저런 짐승 같은 놈들이 사람을 죽이구 살리구 해?) 하고 분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쓔우는 허리를 굽혀 풀을 한 웅큼 와싹 쥐여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풀을 토막토막 손으로 잘라 버리고 있었는데 그의 어글어글한 눈은 어떤 결심을 다지는듯 번쩍이였습니다.

푸우는 소를 외양'간에 매자 곧 경찰 대장이 지나 가는 것을 눈 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경찰 대장놈이 자기 뜨락 앞을 지나는 것입니다. 푸우는 그 놈의 앞으로 다가 가서 공손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좀 들어 가셔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다리쉼을 하시지요.》

경찰 대장놈은 푸우를 힐끗 보더니 좀 의아한 어조로

《너의 아버진 어데 갔느냐?》 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아버진 어디 가셨다 래일에야 돌아 오십니다.》

푸우의 어머니는 1952년에 원쑤놈들의 포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집은 들판 한 가운데 외로이 서 있는 초막집처럼 인적이 없고 쓸쓸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적이 없는 집이 경찰 대장놈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놈은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마을 간부들을 잡아다가 산 채로 땅 속에 묻어 죽이군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놈은 푸우의 집 사방을 둘러 보고는 집안으로 들어 와 나무 판자를 무어 만든 침대에 누워서 오른 손을 이마 우에 올려 놓고 눈을 게슴츠레 뜨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푸우는 그 곁으로 다가 가서

《아저씨, 술 생각이 없으십니까? 마침 우리 집에 술이 있습니다.》 하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 놈은 이 말에 구미가 동했던지 일어나 앉으며

《뭘루 먹겠니, 안주가 있어야지?》 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잡숫던 새우가 손'바닥만큼씩 큰 것이 여라문 개 있습니다.》

《그래? 빨리 좀 차려 오너라, 넌 참 착한 애다.》

푸우는 아버지가 술을 잡수실 줄 아시기 때문에 술 안주를 어떤 것으로 만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우로 안주를 만들고 쓔우더러는 술을 얼른 구해 가지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경찰 대장놈은 침대 우에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그 놈의 입에서는 자꾸만 군침이 돌고 배'속에서는 꾸럭꾸럭 술이 빨리 들어 오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윽고 푸우는 새우살과 배추를 함께 볶은 것을 한 접시 만들고 또 새우 네 마리를 통 채로 구워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가 상 우에 놓았습니다. 푸성귀 반찬까지 만들어다 바쳤습니다. 진한 술 냄새가 온 집안에 풍기게 되자 경찰 대장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며 술'상 앞으로 다가 들었습니다.

《어서 잡수시지요.》

까물거리는 석유 등잔'불에 그 놈의 커다란 그림자가 괴물처럼 벽에 비쳤습니다. 그 놈은 돼지처럼 아귀아귀 들이키군 하였습니다. 벌써 그 놈의 눈은 시뻘겋게 풀어져 게슴츠레하였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낯짝이였습니다.

《어이쿠, 이 술 참 좋다!》

병 속의 술이 거의다 내며 가고 안주도 거진 다 없어졌습니다.

그 놈은 곤드레만드레 취하였는데도 그냥 게걸스럽게 술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말리우고야 술'잔을 놓고는 그 자리에 곤드라지고 마는 것이였습니다.

푸우는 그릇들을 치우고 쓔우는 문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경찰 대장놈은 인차 푸륵푸륵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푸우는 그 놈의 어깨를 흔들며 크게 소리쳐 보았습니다.

《아저씨, 침대에 올라 가서 주무십시오.》

《어, 어, 응!》 그 놈은 이렇게 소리를 내고는 돼지 같이 또 푸루룩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습니다. 쓔우는 등잔'불을 죽이고 가만가만 그 놈의 손에서 기관단총을 빼내고 또 그 놈의 허리에 달려 있는 미국제 비수까지 풀어 냈습니다.

푸우는 소를 매여 두는 소고삐를 가지고 들어 와서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쓔우의 귀에 입을 대고 말하였습니다.

《단단히 힘껏 잡아 다리자구, 힘껏!》

이 말에 쓔우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푸우와 쓔우는 가만가만 경찰 대장놈의 곁으로 가서 그 몸뚱이를 더듬었습니다.

푸우는 그 놈의 어깨를 또 흔들면서

《일어 나십시오. 일어 나십시오!》 하고 소리를 쳐 보았습니다. 경찰 대장놈은 돼지처럼 잔뜩 자빠져서 꼼짝 못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 때 쓔우는 날쌔게 소고삐 올가미를 마마귀신 같은 그 놈의 모가지에다 걸고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자 그 놈이 몸뚱이를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두 동무는 가슴이 막 방망이질을 하듯 들뛰였습니다.

푸우는 이 때라는듯 올가미의 다른 한 끝을 쥔 쓔우의 옆구리를 질렀습니다. 두 동무는 힘을 모아 죽어라고 이'발을 쩔어 물며 당겼습니다. 경찰 대장놈은 마구 몸뚱이를 뒤틀면서 몹시 안타까운 모양이였습니다. 몸뚱이를 이리저리 마구 뒤틀기도 하고 쭉 뻗기도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 놈은 얼마나 애가 탔던지 두 다리로 방'바닥을 콰당콰당 두드리기도 하고 푸루룩푸루룩 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니 그 놈의 두 팔이 털썩 방'바닥에 떨어지고 모가지도 한 쪽으로 삣두룩 드리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에야 두 동무는 나누어 쥐였던 소고삐 끝들을 놓아 주고 재빨리 밖으로 뛰여 나갔습니다.

두 동무는 원쑤에게 이렇게 죽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륙지가 넓은가? 바다가 넓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륙지와 바다로 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륙지와 바다는 어느 편이 더 넓을가요?

지구의 표면적은 모두 5억 1천만km^2인데 그 중에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은 거의 륙지의 2 배가 됩니다. 즉 지구 표면적의 70.5 %가 바다이고 나머지 29.5 %가 륙지인 것입니다.

옛 이야기

돌나물

삼쉬는 그가 어렸을 때 굶어 돌아 가셨다는 어머니 생각을 하며 오늘도 이웃들에서 좁쌀 미음을 얻어 아버지 병 시중을 들고 있었다. 때마침 마을에서 좌상이라 불리우는 한 할아버지가 찾아 오셨다.

《삼쉬야, 애비 허리가 좀 어떠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물으시며 한참 측은히 들여다 보시더니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옛날 늙은이들이 하는 말이 금강산 월출봉에 아주 신기한 돌나물이 있는데 다친 데는 즉효약이라고 하드만도 그 험한 델 갈 수가 있어야지…》

하고는 한숨을 쉬시는 것이였다.

삼쉬는 이 말을 듣고 죽시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돌나물을 구해다 아버지 병을 고쳐 드리리라 결심하였다. 그는 이웃 아주머니들께 갔다 올 동안 아버지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고 해진 짚신을 꽁꽁 동이고 금강산 쪽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 삼쉬가 한낮이 되여 한 마을 앞길에 들어 섰을 때다. 마당'가에서 철부지 아이들이 소경 할머니의 지팡이를 빼앗아 가지고 놀려대지를 않는가. 이것을 본 삼쉬는 바쁜 길이지만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가던 겨떡을 아이들에게 주며 얼리고 지팡이를 도로 찾아 드렸다.

《에구 참, 고맙기두 해라, 어델 가는 총각인지.》

《전 금강산 월출봉에 돌나물을 구하려 가는 길이 올시다.》

《월출봉? 거긴 못 가네, 못 가. 길도 험해서 혼잔 가기 힘들거니와 흉한 일이 있을테니 가지 말게.》

《아니 올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병을 고쳐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앓느냐?》

《우리 아버지는 송 지주네 머슴이야요. 그런데 지주놈은 아버지가 해 온 나무'단이 작다고 막 때렸어요. 그래 허리가 상했어요.》

기특하고 어진 맘씨에 끌린 소경 할머니는 입속으로 무어라고 몇 마디 외이더니 삼쉬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였다.

《어려울 때수록 마음을 든든히 다잡고 싸워 이겨야 하네. 언제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기 마련이다네. 이걸 가지고 가게, 이 장도칼과 검은 병이 자네를 도울걸세.》

삼쉬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장도칼과 병을 받아 가지고 할머니가 가리켜 준 데로 길을 걸었다.

얼마쯤 가노라니 날은 아주 어두워져서 더 갈 수 없어 고콜'불이 가물거리는 외딴집을 찾아 갔다.

삼쉬가 하루'밤 자게 된 집은 이 마을 지주네 머슴을 지내는 아주 가난한 집이여서 덮을 것도 없는 오막살이였다.

하루 종일 걷기에 온 몸이 나른해진 삼쉬는 어느 새 깊은 잠이 들고 말았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 삼쉬는 무엇엔가 몸이 바싹 결박되여 꼼짝을 할 수 없어서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런데 이걸 어쩌랴!

《이 녀석 움쩍 말라, 난 최 지주네 복구렁이다. 오늘은 네 차례야!》

하며 큰 구렁이가 삼쉬 몸을 칭칭 감고 혀'바닥을 날름거리며 덤벼 들었다.

삼쉬는 있는 힘을 다 해서 벗어 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구렁이는 더 꽉 조여 들었다.

《이젠 죽었구나, 아버지 약도 구해다 드리지 못 하구…》

그런데 순간 삼쉬의 머리에 번개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싸워야 한다. 이 놈의 구렁이를 잡아 치워야지!》

삼쉬는 아까 소경 할머니의 말이 그대로 떠올라 두 팔에 힘을 모두어 구렁이 목을 그러안고 비틀아 보았다. 그러나 열 발이 넘는 길고 굵은 구렁이는 꿈쩍도 않고 도리여 삼쉬의 목을 지그시 졸라 매는 바람에 그만 숨 돌릴 새 없이 까무라치

고 말았다.

《매도 못 치는 녀석이 흐흐흐흐…》

구렁이는 한 입에 삼쉬를 삼켜 버리고 구불렁구불렁 최 지주네 집으로 기여 갔다.

미신에 눈이 어두운 최 지주놈은 이 구렁이를 복구렁이라고 날마다 농민들에게서 닭을 빼앗아다 몇 마리씩 잡아 주군 하였다. 그러나 점점 더 부자가 되면서부터는 이것도 아까왔다. 최 지주놈이 닭을 먹이지 않게 되자 구렁이는 밤마다 마을을 싸다니며 사람을 해치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가 나와 다니는 한밤'중에는 한데 모여서 지키며 잠잤다.

이 밤도 주인이 삼쉬를 깨우느라 무척 흔들었지만 세상 모르게 잠든 탓으로 끝내 깨우지 못해 자는 채 뒤쳐 업으려다 그만 구렁이에게 들켜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린 삼쉬는 숨이 답답하고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번쩍 눈을 떠 보니 캄캄한 굴 안 같아서 아무도 보이질 않았다. 그래 손더듬을 해 보며 가만이 정신을 차려 보니 자기가 분명히 아까 그 놈의 구렁이 배'속에 들어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였다. 이 때 삼쉬의 머리에 번개 같은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재빨리 그 장도칼을 꺼내 들고 사정 없이 구렁이 뱀을 토막토막 자르고 배'가죽을 쭉 갈라 버렸다. 그리고는 단숨에 뛰쳐 나왔다.

갑자기 뱀을 끊기운 구렁이놈은 꾸불떡 대며 몸을 배배 꼬며 태질을 하더니 긴 꼬리로 이 기둥 저 기둥을 막 쳤다. 그 통에 와르르 쿵! 하고 그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무너지고 말았다.

최 지주네 집이 무너져 집안이 몽땅 뒈졌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 온 마을 사람들은 원한을 풀었다고 달려 들어 자기들의 피땀으로 가군 쌀과 재물을 빼앗아다 넣은 고'간을 헤치고 골고루 나누어 가져 갔다.

지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고 몇 번이고 칭찬하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이튿날 새벽 삼쉬는 또 길을 떠났다.

삼쉬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무렵에 한 고을을 지나게 되였다. 그런데 어데서 난데 없는 장정 네 명이 와락 달려 들어 다짜고짜 삼쉬의 입을 틀어 막고 손과 발을 꽁꽁 묶더니 메고 가는 것이였다. 영문도 모르게 끌려 온 삼쉬는 하루'밤을 쩌은 냄새 나는 침침한 방에서 뜬 눈으로 밝히며 애닯으게 아버지의 병세만 걱정했다.

(소경 할머니가 위험이 있다더니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여길 벗어나 그 돌나물을 구해다 드려야겠는데…)

삼쉬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앉았는데 동이 훤이 트이자 그 놈의 장정들이 다시 나타나더니만 수건으로 눈을 가리우고 큼직한 베자루에 넣어 찡하고 장'대기에 꿰여 둘러 메고는 어디론지 가는 것이였다.

베자루 속에 들어 간 삼쉬는 어디로 가는가고 바싹 정신을 차리여 장정들의 발자국 소리, 풀'잎사귀 살랑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쯤 가다가 한 사람이

《여보게, 아직 기우제 지낼 시간이야 넉넉한데 다리쉼이라도 좀 하구 가세나.》

하는 것이였다.

그러자 모두들 말없이 베자루를 털썩 내려 놓더니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이였다.

《아니 옛날부터 기우제를 지낼 때 소나 돼지 잡는단 말은 들었어도 사람을 쓴단 말은 처음일세 그려.》

《그러게 말이웨다. 망할놈의 정 지주놈이 골안에 저수지만 두어 개 만들면 될걸, 이 왕가물에 기우제나 지내면 하늘이 알아 준대! 흥.》

《그 통에 동리 소, 돼지는 다 잡아 가고 이제 비가 온대도 소가 있어야 논밭을 갈지, 장마 끝은 없어도 가물 끝은 있다는데…》

장정들이 주고 받는 말을 듣고 삼쉬는 그제야 자기를 기우제 지내는데 쓰련다는 걸 알았다. 삼쉬는 닥쳐 올 위험을 이겨 나갈 궁리을 하며 산 꼭대기까지 메워 올라 갔다. 아니나 다를가 소, 돼지를 잡아 수두룩히 가려 놓은 장작'더미 우에 꽁꽁 묶이운 삼쉬를 올려 놓았다. 그러나 입을 틀어 막은 채 꽁꽁 묶이운 삼쉬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옥해서 장작'더미에 불을 지핀 지주놈들은 비를 오게 해 주십사고 하느님에게 엎디여 절을 하느라고 굽신거리는 것이였다.

불이 황황 타 올라 연기가 새까맣게 덮인 틈을 타서 삼쉬는 이를 악물고 장작'더미 뒤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는 자신이 손끝으로 장도칼을 꺼내 노끈을 끊어 버리고는 연기 속을 헤치고 뒤로 빠져 다북솔 밭을 기여 산'등을 넘어 뛰였다. 어느 새 이 기미를 알았는지 아까 그 장정 한 놈이 말을 타고 악악 고함을 지르며 따라 오는 것이였다. 삼쉬는 기를 써 뛰였지만 달리는 말한테야 견딜 수가 없었다.

삼쉬는 이 번에는 소경 할머니가 두 번째로 준 검은 병을 산 꼭대기를 향해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시꺼먼 연기가 산꼭대기로 뭉게뭉게 피여 올라 가더니 난 데 없이 먹장 구름이 생기며 우르릉 꽝꽝 번개'불이 일고 산꼭대기에 우지끈지끈 벼락을 치는 것이였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아래웃고을 지주놈들과 그리고 지주에게 붙어 먹던 끄나불들이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통쾌하였던지

삼쉬는 저도 모르게 더덩실 춤까지 추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겪은 삼쉬는 더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몇 날 몇 밤을 또 걷고 걸어 금강산에 다달았다.

아슬아슬한 벼랑을 톱아 오르고 골짜기를 헤매며 비로봉을 넘어 동남쪽으로 내려와 월출봉이 바라 뵈는 곳까지 온 삼쉬는 거기서 돌막집 하나를 만나게 되였다.

돌막집 사람들은 삼쉬가 아버지 약을 구하러 멀고 험한 길을 찾아 오며 고생했다는 말을 듣더니 여간 반가와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송 지주네 집에서는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별의별 약을 다 썼지만 그냥 낫지 않아 여기 저기 탐문하다가 삼쉬가 아버지 약을 구하려 금강산 월출봉에 갔다는 말을 들었다.

송 지주놈은 당장 마름 한 사람을 불러다가

《듣거라, 응지'골 삼쉬 녀석이 금강산 월출봉에 약에 쓰려고 돌나물을 뜯으러 갔단 말이 있으니 빠른 말을 타고 가서 빼앗아 오도록 해라!》

《네—잇》

송 지주가 둘도 없이 믿고 있는 마름은 지주놈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달음으로 말 한 필을 꺼내 타고 삼쉬를 찾아 떠났다.

그런 걸 모르는 삼쉬는 돌막집 할아버지에게서 돌나물 얘기만을 신이 나서 듣고 있었다.

《네 행실이 하도 거특하여 도와 줄테다. 래일 아침 우리 돌굴 속에 있는 돌지팡이를 줄테니 그걸 짚고 올라 가서 달 뜰 때를 기다렸다가 돌나물을 뜯으면 약이 되느니라.》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해서든지 꼭 갚겠습니다.》

그 새 벌써 송 지주놈의 마름이 문 밖에 와 이 이야기를 듣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름놈은 돌막집 사람들과 삼쉬가 잠든 캄캄한 야밤에 먼저 돌굴로 다가 갔다. 가까이 다가 가니 돌굴지기 개가 으르릉대서 주춤 섰던 마름놈은 (요놈의 개새

끼 죽어 봐라.)

하며 화살에 독약을 발라 개를 쏘아 죽이고는 돌굴 속으로 들어 가 돌지팡이를 꺼냈다. 그리고는 날 밝을 땔 기다렸다가 월출봉으로 올라 가기 시작했다. 이런 줄은 모르고 돌막집 할아버지는 날이 훤히 밝자 돌굴로 올라 가 보고 깜짝 놀랐다.

《애들아, 이게 웬 일이니? 개가 죽고 돌지팡이가 없어졌구나!》

돌막집 할아버지와 삼쉬는 꼭 나쁜 놈이 뒤를 따랐다는 걸 생각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월출봉으로 달려 올라 갔다.

아니나 다를가 두 굽이를 돌아 서자 앞서 가는 마름놈이 멀리 보였다. 돌막집 할아버지와 삼쉬는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고 기여 올라 가 보니 그게 송 지주놈의 마름놈이 아닌가. 삼쉬는 치솟는 증오심이 북받쳐 그 놈의 뒤'덜미를 덥석 잡아 채자마자 높다란 벼랑으로 굴려 떨구고 말았다.

《날 못 살게 굴던 이놈, 내 손에 죽어 봐라!》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는지 삼쉬의 고함 소리는 쩌렁쩌렁 산울림 쳤다.

돌지팡이를 다시 찾은 삼쉬는 가파로운 벼랑'길과 이끼가 두 겹 세 겹 끼여 발옮

겨 디디기가 어려운 비탈을 나는듯이 올라 갈 수 있었다.

이 날 밤 돌막집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보름'달이 동해 물'결을 가르고 두둥실 떠오를 무렵 삼쉬는 연두색 수정 같이 맑은 잎과 줄기를 가진 신기한 돌나물을 한 아름 뜯어 들고 너무나 고마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강산을 떠났다.

이제나 저제나 마름 오기만 기다리던 송 지주놈은 삼쉬가 돌아 온다는 말을 듣고 《흥, 네 놈이 내 마름께 약을 빼앗겼을 테지.》하고 호통을 쳤다. 그런데 마름놈은 간 데 온 데 없고 삼쉬만이 좋은 약을 구해 가지고 왔다니 이게 웬 말인가고 눈이 둥글해서 미쳐 날뛰였다.

《그 놈이 가져 오는 걸 몽땅 걷어 들여라!》

삼쉬는 그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뜯어 온 돌나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많은 마름놈들이 달려 드는 통에 그만 억울하게도 송 지주놈에게 몽땅 빼앗기고 말았다.

삼쉬는 분통이 터지는 걸 억지로 참으며 집에 돌아 왔다. 그가 너덜이 난 짚신을 벗을 때였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돌나물 부스러기 서너 개가 떨어지지 않는가! 삼쉬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곧 돌막집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잘 찧어서 아버지 허리에 정성 들여 발라 드렸다. 그랬더니 사흘이 안 가서 멍이 졌던 자리가 시뿌옇게 아물고 아버지는 기운을 차리며 일어 나는 것이였다.

삼쉬와 아버지는 와락 그러안고 기쁨을 참지 못 해 울었다.

삼쉬네 집에 모였던 이웃 사람들도 눈'시울을 적시며 삼쉬를 기특하다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칭찬했다.

그런데 송 지주네 집에서는 어떻게 되였을가. 손에 부스럼이 났다고 바른 송 지주놈도, 아들에게 돌나물을 발라 주던 마누라도, 돌나물를 빼앗아 가져 간 마름놈들도 손이고 발이고 할 것 없이 온통 살이 썩어 났다. 보는 사이에 온 몸의 살이 문정문정 썩어 떨어졌다.

돌나물을 쓸 줄 모르는 데다 욕심 사납게 많이 처 발랐으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지주가 없어진 이 마을 사람들은 기를 펴고 부지런히 일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

김 용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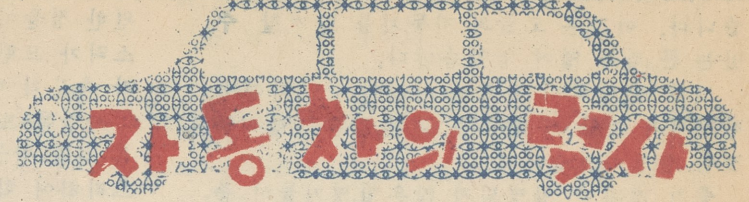
왜 돌아 가는 팽이는 넘어지지 않을가요?

동무들은 겨울에 팽이를 돌리면서 팽이가 왜 넘어지지 않고 돌아 가는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요?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돌아 가는 것은 왜 그럴가요?

물체는 돌기 시작하면 돌아 가는 쪽으로만 계속 돌려는 성질이 생기면서 사방에서 꼭 같은 힘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체가 빨리 돌면 돌수록 사방에서 축을 잡아 당기는 힘은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성이라 합니다. 한 번 돌려 놓은 팽이가 계속 넘어지지 않고 도는 것은 바로 이 회전하는 물체의 관성 때문인 것입니다.

자동차의 력사

최 린원

동무들은 자동차의 력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기선이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이고 기차가 나온 것은 130여 년 전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것은 이제 겨우 70여 년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자동차는 기선이나 기차에 비해 공업이 높은 정도로 발전한 뒤에야 만들어지기 시작한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선이나 기차,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짐을 나르고 려행을 하였을가요?

먼 옛날에 사람들은 물건들을 등'짐으로 지거나 소, 말, 코끼리, 낙타 등 동물들의 등에 싣고 다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야영이나 등산을 가서 옛날 사람들이 쌓은 성토나 또는 오늘의 자동차로도 운반하지 못할 만큼 큰 돌들을 보고 경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무겁고 큰 물건들을 운반했을가요. 그 때에는 주로 둥근 나무들을 깔고 수십명 내지 수백명의 사람들이 끌어서 운반하였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수레가 만들어 졌으나 지금과 같이 도로가 발달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것마저 널리 리용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운반하는 중요한 방법은 사람이 등에 지거나 소나 말,당나귀 등에 싣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였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또한 강과 바다를 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나무를 묶어서 만든 떼'목을 리용하였고 차츰 통나무를 파서 배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바람을 리용하여 떠가는 돛단 배를 만들게 되였습니다.

사람들이 려행할 때에는 물론 걸어 다니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만이 사람이 앞뒤에서 들거나 메고 가는 가마에 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수송은 수 만 년 동안 우에서 이야기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공업이 발전하게 된 16세기 말경에 와서야 사람들은 자체로 움직이는 수레를 만들어 보려고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로부터 200 여 년 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움직이는 수레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만들어진 수레의 공통적인 점은 모두가 수레에 탄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이게 한 것이였습니다. 그후 어떤 사람들은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수레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레들도 수레를 움직이게 하기위하여 들인 사람의 노력에 비하여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증기의 힘을 리용할 수 없겠는가를 연구하다가 드디여 그 힘을 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769 년 로씨야의 몰주노브가 증기의 압력

에 의하여 피스톤이 움직이는 기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자동차를 발견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영국의 왓트란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전시켜 지금 쓰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의 것을 발명하였습니다.

증기 기관이 발명되자 많은발명가들이 증기 기관을 리용하여 자체로 움직이는 수레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 끝에 1802 년에 증기 기관으로 움직이는 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자동차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연료를 넣는 통,물을 끓이기 위한 보이라 등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차가 대단히 컸으며 세 개의 쇠바퀴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증기 자동차는 점차 물건들과 사람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도를 운영하던 자본가들은 증기 자동차 때문에 수입이 적어 질 것을 겁내여 증기 자동차가 한 시간에 6 시간 이상 달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증기 자동차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다닐 때에 소리가 요란하였고 몹시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속도가 빠르지 못 하였습니다.

사람들은또다시 이런 약점을 없애고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없겠는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드디여 축전지의 힘으로 전동기를 돌리여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축전기로 차를 움직이게 하자면 무겁고 큰 많은 축전지가 요구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편하였습니다. 다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내연 기관 (특별한 구조를 가진 기관 속에서 연료가 타서 생기는 기체의 팽창하는 힘에 의하여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을 발명하였습니다.

내연 기관은 증기 기관에 비하여 용적이 몇배나 작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1885 년 독일의 벤쯔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세 바퀴차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 기관을 설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자동차 바퀴로써는 쇠바퀴 대신에 통고무 다이야를 쓰다가 1890 년에 공기를 넣는 다이야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95 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란서에서 자동차 경주가 진행되었는데 시속은 24 km였습니다. 그 후 7 년 후에 불란서 수도 파리와 오지리 수도 윈나 간의 자동차 경주에서는 시속이 69 km에 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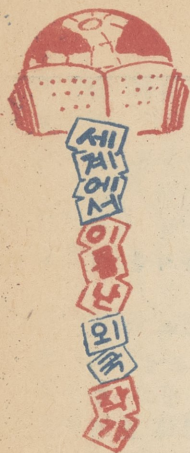
그 후 자동차는 점차 발전하여 지금은 시속 100 km 이상 달릴 수 있게 되였습니다.

현대적 자동차에는 1500 여 종의 부속품이 설치되여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려면 공업이 여러 모로 아주 높으게 발전되여야 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공장이 생겨 나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때로부터 거의 100여 년의 시일이 지나서야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지구 상에는 120 여 개의 나라가 있으나 자동차를 만들어 내는 나라는 많지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천리마 기수들은 해방된 지 겨우 13 년이 지난 1958 년에 첫 자동차를 만들어 냈으며 지금은 덕천 자동차 공장에서 1 년에 3000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해방 전에 기계라고는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미국놈들이 우리의공장과 도시를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주위에 굳게 뭉친 조선 인민은 재'더미를 헤치고 공장을 세워 불과 5 년 만에 자동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우리 나라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가게 하기 위하여 문전을 아껴 가면서 중공업을 건설하였고 기계 공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 당의 정책이 얼마나 옳은가를 깨닫게 되며 우리 인민의 재능을 세상에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데르센

한스—크리스쨘 안데르센(1805 ~ 1875)은 덴마크의 오덴자라는 자그마한 도시의 구두 수리공의 아들로 태여났습니다.

그러므로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에 아주 보잘것 없는 집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일찌기 아버지마저 여의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막벌이 일을 하면서 어린 안데르센에게 양복사의 일을 배워 주고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크고 꿈이 많았던 어린 안데르센은 열 네 살에 자기 집을 뛰쳐 나와 코펜하겐이란 곳으로 갔습니다. 이때 그는 극장에 온 정신을 다 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연극 배우가 되려다가 나중엔 또 가수가 되려고 애썼지만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시기 그는 변변히 먹지도 못 하고 떠돌아 다니면서 남의 작품을 모방한 몇 개의 비극을 썼습니다. 그 작품들은 그 자신이 말한 것처럼 거의 매 단어마다에서 철자법이 틀렸습니다.

안데르센이 열여 덟에 난 해에 그에게 얼마간의 장학금을 당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젊은 안데르센에게서 앞날의 재능 있는 작가로 될 수 있는 싹을 보았던 것입니다. 안데르센은 중학교 2 학년에 입학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안데르센보다 어렸습니다. 총명한 안데르센은 학과를 그다 힘들지 않게 배워 나갔습니다.

돈 많고 잘 사는 집의 심술궂은 아이들은 구두쟁이의 아들이 학교가 다 뭐냐고 하면서 천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데르센은 끝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종합 대학에까지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안데르센은 시, 경희극, 려행기 등 여러 가지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스물 다섯 살 때부터 외국에 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려행에서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구라파 나라들의 유명한 작가, 예술가들을 친히 알게 되였습니다. 안데르센은 주로 외국에서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이태리로의 첫 려행을 마치고 돌아 와 그는《즉흥시인》이라는 장편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으로 해서 안데르센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뒤를 이어 그는 몇 개의 장편 소설과 회극을 발표하였습니다.

1835년부터 가끔 안데르센의 동화집들이 나왔습니다. 이 때로부터 세계는 그를 덴마크의 첫째 가는 작가로 인정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국인 덴마크에서만은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안데르센이 상놈 출신이라는 것과 그가 평민들이 쓰는 말로 작품을 쓰는 것이 낡은 것에 물젖은 평론가들에게 아니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건 말건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문학어를 가난한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말로 풍부하게 하면서 자기 갈 길로 나갔습니다. 인민들은 이 동화 작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였습니다.

마침내 안데르센을 미워하던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받들어 주게까지 되였습니다.

안데르센은 그의 일생의 마지막 무렵에 가서《로동자 동맹》이라는 조직에 들어 근로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생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안데르센 동화》라고 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가 얼마나 재미 있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안데르센 동화》는 아이들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사랑도 받는다는 것이 다른 작가들이 쓴 동화와 다른 점입니다. 안데르센 자신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만 동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도 쓰고 있다. 아이들은 그 동화가 주는 환상을 흥미 있어 할것이고 어른들은 그 속에 담긴 사상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1835년부터 1872년까지 사이에 안데르센은 156편의 동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안데르센의 모든 동화들에는 인간들, 특히는 근로하는 보통 사람들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운 웃음과 재미있는 모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데르센의 동화들은 온 세계 사람들과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은 자기 일생에 대한 회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거리를 거니는데 웬 사내 아이가 그 한테로 달려 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사내 아이의 어머니가《애 너 어떻게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하고 물으니《아니예요, 이인 모르는 사람이 아니예요! 이인 안데르센인걸요! 그인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하고 사내 애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소년들은 그토록 안데르센을 잘 알았으며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어린 독자들도 안데르센의 동화를 즐겨 읽습니다.

스키 타기를 즐기는 동무들에게 스키 타는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내리 달리기에는 곧추 내리기와 비껴 아래로 내리기 두 가지가 있다.

내리 달리기 때에는 항상 지팽이를 뒤로 가져가야 하며 앞으로 가져왔다가 혹 넘어지면 찔릴 위험이 있다.

① 곧추 내리기

곧추 내리기는 경사에 따라 세 가지 자세를 취한다.

경사가 적은 곳에서는 몸을 많이 굽히지 않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에서 내리 지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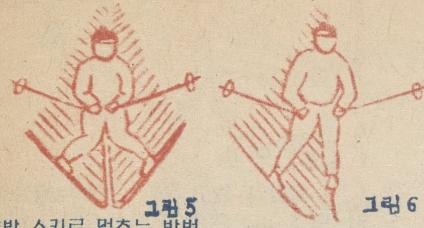
경사가 좀 크게 진 곳에서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웃몸을 앞으로 좀 더 숙인 자세에서 내리 지친다. (그림 2)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무릎을 깊이 굽히고 앉은 자세에서 내린다. (그림 3)

② 비껴 아래로 내리기

경사가 심한 곳에서 스키를 타려면 비껴 아래로 내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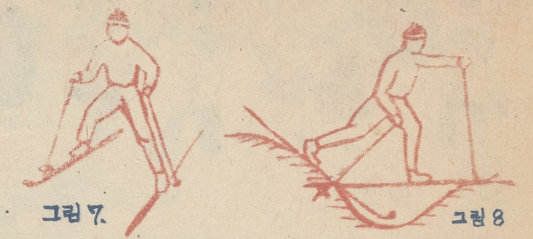
비껴 아래로 내리는 방법은 곧추 내리기와 비슷한데 산쪽에 가까운 스키는 앞으로 약간 내여 디디고 체중은 골짜기에 가까운 다리에 두어야 한다. (그림 4)

※ 내리 달리다가 멈춰서는 방법

량발 스키로 멈추는 방법

지쳐 내릴 때 스키 뒤쪽을 벌리며 스키 앞쪽은 마주치는 정도로 모아 스키의 안쪽으로 지치면 속히 멎는다. (그림 5)

한 발로 멈추는 방법

이 방법은 경사가 30° 이상일 때에 흔히 쓴다. 체중을 곧바로 선 스키에 집중시키고 안으로 비껴 짚은 스키의 안쪽 모로 점차 멈춘다. (그림 6)

눈 우에서 부닥칠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ㄱ. 한발을 옮겨 짚으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그림 7)
ㄴ. 웅덩이를 앞으로 극복하는 방법. (그림 8)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 다리와 오른 손 지팽이는 그 대로 짚은채 왼다리와 왼쪽 지팽이를 내짚으며 건너 뛴다.

1964년 2월중 단, 분단, 반들에서 할 일

첫째. 졸업 및 진급 시험을 우등, 최우등으로 맞이하기 위해

ㄱ. 교과서(겉가위 씌우기), 학용품 (노트,
연필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가지고
새 학기 첫 날 학습에 참가.
ㄴ. 지난 기간 배운 학과목 학습장 정리.
ㄷ. 뒤떨어진 동무의 학업 성적을 우등,
최우등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
조직.
ㄹ. 누구나 한가지 씩의 연구 소조에 참
가하여 배운 지식을 다져 나가도록
사업 조직.
ㅁ. 《독서 행군》에 누구나 다 참가하여
많은 문학 서적과 과학 서적 읽기.
ㅂ. 학과 경연 대회, 작문 짓기 대회, 시
랑송 모임, 동화 구연회 조직.

둘째. 공산주의 교양 사업

ㄱ. 당정책 학습
★조선 로동당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민청 제 5차 대회를 앞
두고 보낸 민청 중앙 위원회 호소문
내용을 가지고《분단 토론회》, 그림
극 및 환등극을 만들어 발표.
★조선 로동당 제 4 기 제 7차 전원
회의 결정 내용을 해설 선전하는《소
년 선전 예술대》,《꼬마 선동원》활동
강화.
ㄴ. 혁명 전통 학습.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 학교 시절》,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공청원, 아동
단원들의 활동을 내용으로 한《혁명
전통 연구 모임》조직.
ㄷ. 미제와 일제, 지주, 자본가 놈들의
죄행을 폭로하는《이야기 모임》및 그
림 전람회 조직.
ㄹ. 《소년단원들의 의모 단정에 대한 준
칙》과《소년단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례의 도덕》을 잘 알고 그
대로 실천해 나가도록 사업 조직.
ㅁ. 조선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뜻깊게
맞기위해 인민군대 아저씨들과의 상
봉, 위안 공연, 후방 가족 원호 사업.

세째. 소년단 조직 생활 강화

ㄱ. 방학간 사업을 총화하는 단, 분단 총
회 진행.
ㄴ. 매주 토요일《소년단원의 날》활동
강화.
ㄷ. 소년단 입단 준비 및 민청 가맹 준비
사업.
ㄹ. 새 학년도에 들어가 진행할 단, 분단
위원회 및 반장 선거를 위한 준비 사
업.

네째.《꼬마 7개년 계획》활동을 잘 하기 위한 사업.

ㄱ.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 돕기.
ㄴ. 봄 맞이 준비—해바라기, 역삼, 꽃씨
등 모으기.
ㄷ. 파지, 가위밥, 구리 (동합금), 공병 등
페설물 모으기.
ㄹ. 참새, 까마귀, 방울새 등 해조 잡이.
ㅁ. 전기 철도 공사에 떨쳐 나선 민청원
형님들을 돕기 위한 사업 조직. (위문
편지, 선물 조직 등)

(유희) 썰매 계주

준비 매개 유희자들은 썰매 한 조씩 준비한다.

유희장

유희 조직: 유희자들은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다.

유희 방법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두편 유희자들은 썰매를 타고 출발선을 떠나 6 각형의 매개 표식점을 돌면서 자기 위치까지 돌아 온다.

다음 번 유희자는 첫번 유희자가 출발선에 도착되는 순간에 출발선을 떠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유희를 계속한다.

먼저 출발선에 다 돌아 온 편이 이긴다.

(요술) △ 수건 만들기

준비: 계란 껍질 1개. 손'수건 1 개.

노는 방법 계란 껍질 구멍이 보이지 않게 두 손으로 들어 구경하는 사람에게 보인다 두 손으로 보이지 않게 계란을 싸쥐고 구멍에서 수건을 천천히 끄집어 낸다. 수건을 거의 다 꺼내였을 때 계란 껍질 구멍에 오른 손 엄지 손'가락을 넣어 가지고 손'바닥에 감추어 쥐면서 수건만 펼쳐 보인다.

스키 계주

유희장: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산 언덕을 정한다.

준비; 기'발 8~10 개와 2~3 조의 스키, 1 조의 지팽이를 준비한다.

유희 조직;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 다음 출발선 뒤에 일렬로 선다.

유희 방법; 지도자의 호각 신호가 나면 1번부터 주로를 따라 목표물을 돌아 내리기 시작한다. 다 내려 가서 마지막 목표물을 돈 다음에는 오르는 주로를 따라 처음의 출발선까지 도로 올라 와야 한다.

출발선에 도착한 1 번은 2 번에게 지팽이를 인계하여 준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여 먼저 끝난 편이 승리 자가 된다.

1 호 현상 문제

(중등반)

동무가 알고 있는 아동 혁명단원 5 명 이상을 들고 그들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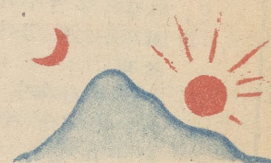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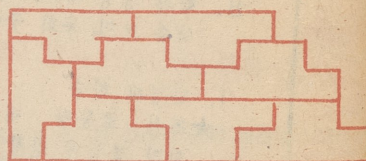
(인민반)

동무가 알고 있는 아동단에 대한 노래 제목 3 개 이상을 적어 보내시오.

★11 호 현상 문제 해답

(인민반)

달이 뜰 때면 불룩한 부분은 언제나 태양이 있는 쪽으로 향한다.

(중등반)

11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중등반)

평남도 성천군 삼덕 중학교 민 동선
황남도 신천군 새날 중학교 김 선애
함흥시 성천 중학교 김 하찬
강원도 원산시 광석 중학교 배 창용
평북도 운산군 금산 중학교 임 정남

(인민반)

함남도 오로군 천불산 중학교 박 장근
평북도 신의주시 송한 중학교 송 광순
자강도 만포군 미타 중학교 김 창록
함북도 길주군 평육 중학교 허 채련
평북도 곽산군 고현 중학교 강 경옥

잡지명 소년단 제 1 호 (류계 171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3년 12월 25일 발행 1964년 1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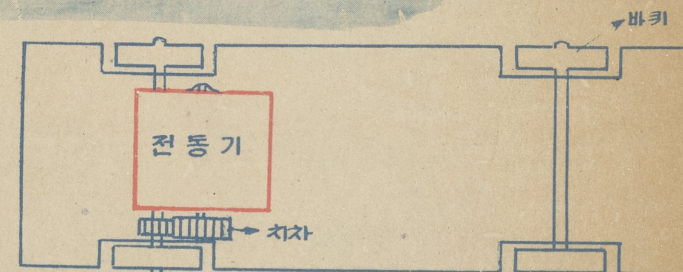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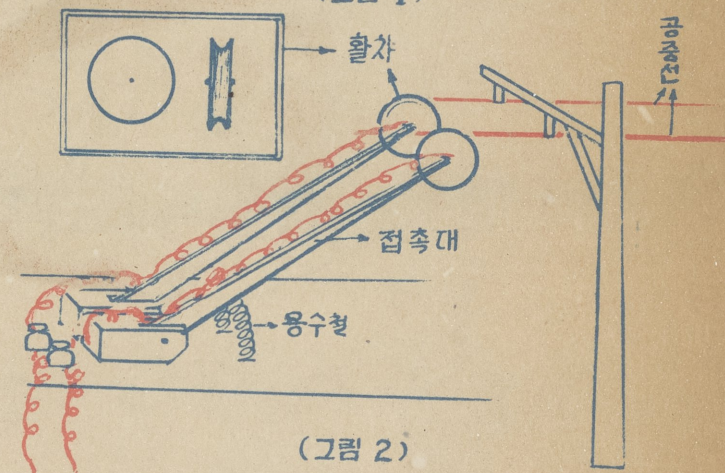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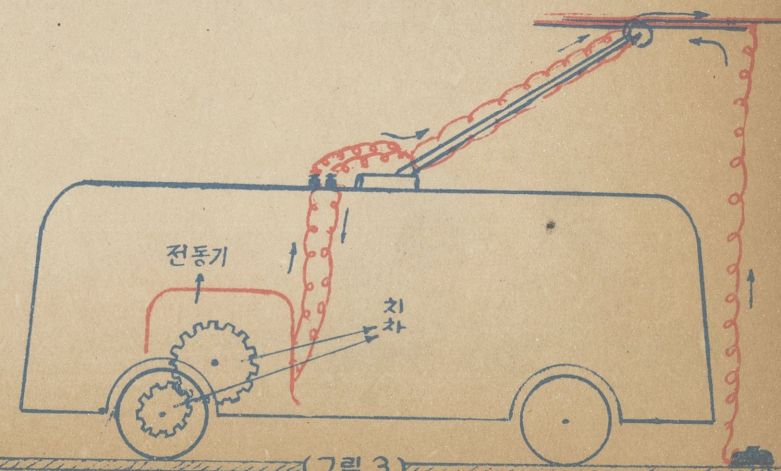
ㄱ-330796 값 35 전

무궤도 전차

재령 중학교 물리 연구 소조원들은 자기들이 만든 《무궤도 전차》를 시험하고 있다.

만드는 방법

ㄱ, 전동기를 만드는 방법은 략한다.

ㄴ, 차대

널판자를 그림 (1)과 같이 잘라 내고 여기에 전동기와 바퀴를 고정시킨다.

이 때 바퀴에 전동기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퀴 축과 전동기의 축에 치차를 달아야 한다.

ㄷ, 접촉대

접촉대는 그림 (2)와 같이 나무로 만든다. 접촉대에는 활차를 끼울 수 있게 홈을 피고 활차가 잘 돌 수 있게 고정못으로 고정 시킨다.

용수철은 직경 1 mm 정도 되는 강선으로 만들면 된다.

ㄹ, 회로는 그림 (3)과 같이 스위치를 넣으면 전류가 공중선을 거쳐 접촉대를 지나 전동기로 들어 가 다시 다른 공중선으로 흐르게 된다.

ㅁ, 외형은 얇은 널판자로 만들고 색을 써서 곱게 그리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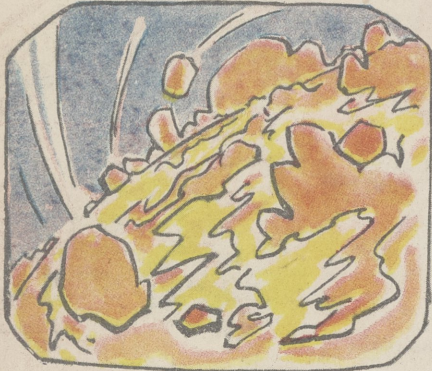
전주대

(그림 1)

(그림 2)

(그림 3)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454 호

글—안 형룡 그림—안 창

⑩ 《그런데 바다와 산은 어떻게 생겼을가?》

명숙이는 더욱 재미가 나서 물었다.

《높은덴 산이되고 낮은덴 바다가 됐지 뭐》

관식의 말에 창남이는 하하 웃어댔다.

《그런게 아니라…》 창남이는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성운들이 큰 덩어리로 뭉침 속에는 우라늄, 라듐 등 여러가지 방사성 원소(원자 핵이 파괴되면서 많은 열을 내는 물질)들이있어 그 열에 의하여 녹은 돌물이 압력으로 인하여 우로 올라와 지구 표면이 울룩불룩하게 된것이야》

⑪ 《그러면 바다'물은 어데서 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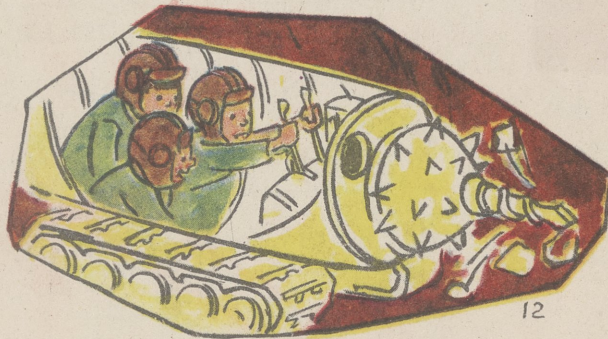
관식이는 아직도 모르겠다는듯 물었다.

《뜨거운 지구가 점차 식기 시작하자 지구를 둘러 싸고있던 두러운 수증기층이 물이되여 땅에 떨어졌단다. 그때의 비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없는 폭풍우였어. 이 비'물에 땅우의 많은 쇠'돌가루들이 강이나 바다에 흘러 내렸단다. 그 후 또 지구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어떤 곳엔 큰 철광맥이 생겼어.》

⑫ 창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였다
《앗 전진 방향이 변해가고 있어》
명숙이가 소리쳤다.

사실 차는 전진 방향을 잃지 않
데 자침은 변해가고 있었다.

《애 제마음대로 방향을 돌리면
게 하니》

겁에 질린 관식이가 조종대를
당기는 것을 본 명숙이는 이렇게
주었다.

⑬ 셋은 재빨리 이 지점의 지질도를 펼쳤다.

《응, 여기엔 약 4 억 년 전에 비'물에 흘려 온 쇠'돌들이 땅속 열로 수분을 잃고 적철광으로 된 광맥이 있을지 몰라》

동무들은 창남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⑭ 《철 발견》

데레비죤 영사막에 나타난 철광맥을 바라보는 그들은 무한히 기뻤다.

《침착할걸》

관식의 얼굴엔 기쁨과 함께 이런 자책도 어리여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